

최 인 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어체 Corpus의 구문 분석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경 화

국문 초록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들어선 지금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더욱 그 연결 고리가 복잡해져 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에 대한 냉소적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10년 영어 공부에도 외국인 앞에만 서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문법 교육에 기인한다 생각하여 기존의 어법 학습은 소홀히 하고 영어회화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법/어법이 필요하다.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 상황 및 격식에 따라서 크게 BICS, 즉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와 CALP, 즉 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로 나뉜다(Cummins, 1980). 기본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인 BICS는 대인관계를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며, 인지 학문적 언어 능력인 CALP는 학술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지 능력과 상호 보완적인 창의적 언어 능력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회화 교육에 일조하고자 BICS에 중점을 두어 구어체 구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서는 문어체와 구어체, 격식체와 비격식체 등에 따른 차별화 된 구문 제시를 하지 않아 학습자들이 각각의 frozen, formal, consultative, casual, intimate 등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구문 사용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의사 소통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구어체 구문은 casual, intimate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구어체 구문을 분석하여 구어체 구문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지 못한 국내 학습자들에게 원어민과 의사소통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어체 구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장에서는 구어체 구문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model corpus의 구문 분석 기준, 분석 대상의 자료 선정,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명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분석 자료로 선정된 총 4447개의 문장에 대한 구문분석 결과를 15가지 기준별로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문어체 구문에는 해당되지 않는 Non-clausal units(비절 구조)를 Inserts(삽입구)와 Syntactic non-clausal units(통사적 비절 구조)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총 15개의 분석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구어체 구문 특징 이외에 구어체 표출(performance)시 일어나는 특징을 다루어 보았다. 구어체 구문 사용은 실시간(real-time) 상황 하에서 비계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발화를 수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구어체 표출(performance)시 발생하는 현상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구어체 구문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석의 의의, 그리고 차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어체 구문 특징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FL이라는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욕구, 더욱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어 회화 능력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제적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BICS 차원의 구어체 구문에 대한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 결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학습자들의 영어 사용 능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1.1 구어체 corpus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1
1.2 분석 기준과 근거	3
1.2.1 구문 분석	3
1.2.2 Non-Clausal Units(비절 구조) 분석	4
1.2.2.1 Inserts의 주요 기능에 따른 분석	4
1.2.2.2 Syntactic Non-clausal Units의 분석	5
1.3 자료선정	6
1.4 연구의 제한점	6

II. Model Corpus 구문 분석

2.1 단문/중문/복문 (Simple/Coordinate/Compound Sentence) . . .	7
2.2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 (Sentence Types)	9
2.3 형식 (Verb-based Basic Structures)	12
2.4 시제 (Tense & Aspect)	13
2.5 조동사 (Modal Verbs & Auxiliaries)	17
2.6 준동사 (Verbals)	27
2.7 분사구문 (Participle Clause)	35
2.8 법 (Mood : Tone / Attitude)	36
2.9 태 (Passive Voice : Subject ← Object)	40
2.10 관계사 (Relatives : Linking Antecedents with Modifying Clauses)	42
2.11 접속사 (Conjunctions : Linking Phrases / Clauses) . . .	47
2.12 특수구문 (Structural Variations)	57
2.13 연결사 (Cohesive Markers)	66

2.14 비교구문 (Comparisons)	69
2.15 기타 구문 특징(Other Features)	71

Ⅲ. Non-clausal units(비절 구조)의 분석

3.1 각 Inserts의 기능에 따른 분석

3.1.1 Vocatives	75
3.1.2 Interjection	81
3.1.3 Greetings & Farewells	82
3.1.4 Discourse Markers	83
3.1.5 Attention Signals	85
3.1.6 Response Ellicitors	86
3.1.7 Response Forms	87
3.1.8 Polite Speech-act Formulae	91
3.1.9 Expletives	93

3.2 Syntactic non-clausal units의 기능적 범주에 따른 분석

3.2.1 Elliptic Replies	97
3.2.2 Condensed Questions	98
3.2.3 Echo Questions	99
3.2.4 Condensed Directives	99
3.2.5 Condensed Assertions	100
3.2.6 Elliptic Exclamatives	100

IV. 구어체 영어 표출의 특징 (Performance Phenomena)

- 4.1. Hesitations(silent and filled pauses) 101
- 4.2. Repeats (false starts) 102
- 4.3. Retrace-and-Repair Sequences : Reformulations 102
- 4.4. Grammatically Incomplete Utterances 103

V.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단문/중문/복문	7
[표2] 문장 형태	9
[표3] 시제-기본/완료시제	13
[표4] 시제-진행/완료진행시제	14
[표5] 조동사 do	18
[표6] 조동사 can/could	18
[표7] 조동사 may/might	19
[표8] 조동사 will/would	20
[표9] 조동사 should	21
[표10] 조동사 must/have to	21
[표11] 조동사 + have p.p.	23
[표12] 조동사 may/will/must/can의 조합	24
[표13]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	25
[표14] 기타 조동사구	26
[표15] 유사조동사	27
[표16] 준동사	28
[표17] To 부정사 - 명사적 용법	28
[표18] To 부정사 - 형용사적 용법	29
[표19] To 부정사 - 부사적 용법	31
[표20] 원형부정사	32
[표21] 동명사	33
[표22] 분사	34
[표23] 분사구문	35
[표24] 법	36
[표25] 가정법	36
[표26] 수동태	40
[표27] 관계대명사	42
[표28] 관계부사	44
[표29] 복합관계대명사	46
[표30] 접속사-시간	47
[표31] 접속사-원인/이유	49

[표32]	접속사-방법/목적/결과	50
[표33]	접속사-양보/대조	50
[표34]	접속사-첨가/추가	51
[표35]	접속사-조건	53
[표36]	상관접속사	54
[표37]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생략	55
[표38]	사고동사/감정형용사 that 생략	55
[표39]	도치	58
[표40]	강조	61
[표41]	생략	64
[표42]	연결사	67
[표43]	비교구문	69
[표44]	축약 발음	74
[표45]	Vocatives	75
[표46]	Familiarized first names	76
[표47]	Endearments	77
[표48]	Family terms	78
[표49]	Familiarizers	78
[표50]	Title and Surname	80
[표51]	Honorifics	80
[표52]	Interjection	81
[표53]	Greetings & Farewells	82
[표54]	Discourse Markers	83
[표55]	Response Elicitors	86
[표56]	Response to Questions	88
[표57]	Response to Directives	89
[표58]	Response to Assertions	90
[표59]	Various Polite Speech-act Formulae	91
[표60]	Please의 사용 위치	92
[표61]	Taboo Expletives	93
[표62]	Moderated Expletives	94

I. 서론

1.1 구어체 영어(Spoken English) 구문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21C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지금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더욱 그 연결 고리가 복잡해지면서 자국의 최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언어,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은 자국의 이득을 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 구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영어 교육에 대한 냉소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교육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 생활까지 하고 있지만 영어 회화가 되지 않아 학원이나 전화 영어 교습 등을 통해 얼마 안가 사교육비까지 감수하면서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공교육의 영문법 교육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겨 영어 구문에 대한 학습은 필요 없고, 무조건 회화 능력만을 갖추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준비 없이 영어권 국가에 언어 연수를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상황에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문법/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연역적 사고를 하는 청소년 이후의 성인이라면 문법 지식이 언어 습득에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된다.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문법과 독해만 배웠고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영어 공부에도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도 뻥긋 하지 못한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영문법 교육이 잘 못되었다기 보다는 그저 시험을 치기 위한 “문법만을 위한 문법(Linguistic Knowledge)”에 치중해왔고,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다소 인위적 구문만 접하여 원어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구문에 노출되지 못해 의사 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배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Krashen(1981)은 그의 Monitor Model에서 학습(learning)이 형식과 규칙에 의거한 과정인 반면, 습득(acquisition)은 언어상의 체계를 이루는 잠재적이고 직관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의사 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미에 근거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습득(acquisition)의 과정을 거쳐 목표언어를 내재화 시킨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표출(performance)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Krashen과 Terrell(1983)이 The Natural Approach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how + 형 + 부 + 주 + 동’, ‘What + a + 형 + 명 + 주 + 동’과 같은 공식은 언어 구사 능력 배양에는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Richard 와 Rogers(1996)도 이러한 학습이 acquisition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 상황 및 격식에 따라서 크게 BICS, 즉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와 CALP, 즉 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로 나뉜다(Cummins, 1980). 기본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인 BICS는 대인관계를 영위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며, 인지 학문적 언어 능력인 CALP는 학술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지 능력과 상호 보완적인 창의적 언어 능력을 가리킨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현실적 실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위주의 BICS에 초점을 두고 구어체 구문 분석을 실시하여 원어민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구어체 구문을 제시하고, 실제 사용되는 실례를 가능한 많이 들어 학습자들의 구어체 구문 습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구어체 구문과 문어체 구문 차이를 알아보고 학습자들에게 회화체 격식에 맞는 적절한 구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영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 원어민들이 구사하는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 구사 능력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부각되는 현대에 융합·조화 될 융통성 있는 세계인(cosmopolitan)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데 분석 초점을 두어 구어체 구문 학습 시 필요한 의미 있는 구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가 학습자의 영어 구사 능력 향상에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한 구문 분석 자료로서 일상 생활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의사소통과 가장 근접한 장르인 영화와 시트콤의 살아있는(authentic) 언어 corpus를 선

택하여 구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1.2 분석 기준과 근거

본 연구는 구어체 구문 corpus 총 4447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구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원어민들이 구사하는 언어에 가장 가까운 영화와 시트콤을 분석 자료로 택하여 구어체 살아 있는(authentic) 구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기준은 실용 영어 어법(최인철, 1997)과 Contemporary English Grammar(Longman, 1999)를 참고로 하여 구문 분석 기준을 세웠다.

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구문 분석 기준

- 단문/중문/복문 (Simple/Coordinate/Compound Sentence)
-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 (Sentence Types)
- 형식 (Verb-based Basic Structures)
- 시제 (Tense & Aspect)
- 태 (Passive Voice : Subject ← Object)
- 법 (Mood : Tone / Attitude)
- 관계사 (Relatives : Linking Antecedents with Modifying Clauses)
- 특수구문 (Structural Variations)
- 분사구문 (Participle Clause)
- 준동사 (Verbals)
- 접속사 (Conjunctions : Linking Phrases / Clauses)
- 연결사 (Cohesive Markers)
- 비교구문 (Comparisons)

1.2.2 Non-Clausal Units(비절 구조)의 분석

구어체는 격식체인 문어체와 달리 단문/중문/복문의 절 단위의 분석 기준으로는 분석 될 수 없는 Non-clausal units(비 절 단위)가 있다. 이 non-clausal units는 문어체 분석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 구어체 구문의 분석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Non-clausal unit는 Inserts(예: Hi!)와 Syntactic non-clausal units(예: My turn?)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된다.

1.2.2.1 Inserts의 주요 기능에 따른 분석

Inserts는 single words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Inserts는 통사적으로 완전한 문장과 함께 사용된다.

다음의 실례를 참고로 하여 Inserts의 의미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nterjections : oh, wow, ugh, ooh, etc.
- response forms : yeah, no, uh huh, mhm, etc.
- expletives : damn it, God damn, etc.
- greetings & farewells : hi, good morning, etc.

위에 제시된 Inserts 기능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을 하는 Inserts가 있는데 이는 본문에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Inserts의 기능

- Vocatives
- Interjection
- Greetings and Farewells

- Discourse Markers
- Attention Signals
- Response Elicitors
- Response Forms
- Polite speech-act formulae
- Expletives

1.2.2.2 Syntactic non-clausal units의 분석

Syntactic non-clausal units는 Inserts와는 달리 문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통사적 범주로 취급되어 독립적 사용이 가능하다. My turn?을 예로 들어보면, 이는 다른 더 큰 단위와 연결될 경우 다음의 통사적으로 완전한 절이 성립하게 되어 Inserts와는 그 범주를 달리 하게 된다.

Is it my turn?

이러한 생략(Ellipsis) 현상은 언어사용의 경제성과 정보전달의 명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어체 구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또한 생략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데서 오는 친근감을 더해 주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Hymes, 1972)

Syntactic non-clausal units의 기능적 범주

- Elliptic Replies
- Condensed Questions
- Echo Questions
- Condensed Directives
- Condensed Assertions
- Elliptic Exclamatives

지금까지 제시한 분석 기준은 기존의 문법서와 달리 의미 중심으로 하여 구어체 구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학습자들에게 구어체 구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와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구사하는 언어에 근접한 언어 구사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3 자료 선정

분석 대상 corpus로 영화는 가족 드라마 ‘Pleasantville(1999)’의 1249개의 문장과 코미디 드라마 ‘Meet the Parents(2000)’의 1609개의 문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시트콤은 미국 NBC 방송국에서 1994년에 시작하여 현재 시즌 10까지 방영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Friends 에피소드 <901~905> 1589개 문장을 발췌·선정하였다.

1.4 연구의 제한점

선정된 corpus는 총 4447개로 그 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소재가 더욱 다양할수록 구어체 구문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나 본 연구 분석에서는 그 수가 총 4447개로 다소 제한되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corpus로 선정된 문장 4447개는 구문 분석 실시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로 구어체 구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II. Model Corpus 구문 분석

이 부분에서는 영화 ‘Pleasantville’의 1249개의 문장, ‘Meet the Parents’의 1609개의 문장, 그리고 시트콤 ‘Friends : <episode 901~902>’의 1589개 문장의 총 4447 문장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구어체 corpus 분석을 통하여 구어체 구문 특징을 알아보고 구문 분석 결과가 실제 영어 교육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논술체 문어체 구문 분석을 참조하여 구어체와 어떤 구문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다.

분석 corpus로 사용된 ‘Meet the Parents’, ‘Pleasantville’, ‘Friends’의 용례 제시는 각 제목의 이니셜을 사용하여 M, P, F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2.1 단문/중문/복문(Simple/Coordinate/Compound Sentence)

[표1] 단문/중문/복문 (사용갯수 / %)

단문	2,698/4447	60.67
복문	706/4447	15.87
중문	171/4447	3.83
non-clausal units(비절 구조)	863/4447	19.40

단문, 복문, 중문 구조에서는 단문 구조 비율이 60.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문 또한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문이나 간단한 복문 등으로 문장 구조상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스타일을 사용한 대화가 주를 이룸을 알 수 있다.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원어민 논술체의 경우 단문 사용 비율이 최고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볼 때 원어민들은 논술체인 문어체에서보다는 일상 생활 대화가 주를 이루는 구어체에서는 간단 명료한 단문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논술체 문어체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non-clausal units(비 절

구조)가 19.40%의 사용 비율을 보여 구어체 구문의 주요한 문장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반드시 학습자들에게 원어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 구문 형태임을 가르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단문(simple sentence) 구조 사용에 있어서 연결사 'and'과 'but'를 즐겨 사용하여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corpus에서 발췌한 연결사 'and' 실례를 보도록 하자.

a) I came home like I always do. (P)

and I went in the front door.

and I took off my coat.

and I put down my briefcase.

and I said, "Honey, I'm home."

b) You're in your thirty's. (F)

and you've never had a serious relationship.

and you have never been in a long term relationship.

c) We are here one hundred per cent. (F)

and we love you.

and we are ready to start your birthday celebration.

위의 실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결사 'and'는 차후 'Cohesive Markers(연결사)' 부분에서 더 연구되겠지만, 접속사 'and'와는 구별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Corpus로 선정된 영화와 시트콤 중 시트콤에서 그 사용이 돋보여 연결사 'and'를 사용하여 단문의 짧은 문장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현대 구어체 구문의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표1]에 제시된 non-clausal units(비절 구문)은 단문/중문/복문 기준으로 분석될 수 없는 기준으로 차후 III. non-clausal units 부분에서 더 연구될 것이다.

2.2 Sentence Types

[표-2] 문장 형태 (사용갯수/%)

평서문(Statements)	2687/4447	60.69
의문문(Interrogatives)	562/4447	13.16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	202/562	35.94
부가 의문문	23/562	4.09
명령문(Directives)	323/4447	7.25
간접 명령문	45/323	13.93
감탄문(Exclamations)	12/4447	0.26
non-clausal units(비절 구조)	863/4447	19.4

평서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서술하는 긍정문과 부정문을 의미한다. 전체 corpus의 60%이상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의문문은 13.16%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이중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이 의문문 전체의 35.94%의 사용 비율을 보여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은 친근한 회화체, 즉 구어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구문으로 평서문 형태의 끝만 억양을 올리면 된다.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의 17장에서는 문법의 통사적인 유형과 담화의 기능관계에 대하여 한 단원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문법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자가 국내 학습자들을 구어체 표출(performance) 행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평서문 형태 의문문 사용이 구문 구조상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face-to-face communication)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배운 의문문 공식에 끼워 맞추어 be동사/조동사가 없는 경우 Do/Does/Did를 주어 앞에 위치시키거나 조동사(be동사/have조동사 포함)군의 첫 번째 조동사(Operator)와 주어의 순서를 바꾼 공식 그대로 끼워 맞추기 식의 문장을 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러한 공식을 따르는 것이 비문인 것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 실제 원어민들은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을 자주 사용하여 더욱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의문문을 구사하고 있었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평서문 형태 활용의 용례이다.

- a) This thing still works? (M)

- b) You got your admission letter? (P)
- c) So you wanna go have lunch? (F)
- d) You pick it? (M)
- e) So he had to ask his permission? (M)
- f) Oh, wow, somebody smoked out here? (F)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 이외에도 부가의문문 문장 구조가 전체 의문문의 4.09%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어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 구문과 큰 차이를 보여 회화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문임을 알 수 있었다. 부가의문문은 Non-clausal units(비절 구조)의 Inserts의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response elicitors에 포함되기도 한다. 부가 의문문 구조는 우리말에 없는 구문으로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구문을 제시를 통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Corpus에 제시된 부가의문문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I kind of have to, don't I? (F)
- b) Breaks your heart, doesn't it? (P)
- c) So, things are going real well for you, aren't they, Kevo? (M)
- d) You spray-painted his tail to make him look like Jinxy, didn't you? (M)
- e) Help me with this, will you? (P)
- f) If you love a place, you can't just sit back and watch this kind of thing happen, can you? (P)

명령문은 전체 구문 중 총 7.25%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명령문은 문두를 동사로 시작하여 명령하는 직접 명령과 목적어 앞에 Let을 사용하는 간접 명령으로 나뉘어 쓰인다. 직접 명령문은 그 쓰임이 간단하여 활용하기가 쉬운편이나 명령문 전체의 16.18%의 사용 비율을 보인 'let' 간접 명령문은 직접 명령문에 비해 단순하지 않아 관용 표현처럼 발음 연습을 하여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 간접 명령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청유 구문인 ‘Let’s~’ 가 73.33%의 사용 비율을 보였고 이 구문 중에서도 ‘Let’s go!’ 단독 사용 비율이 24.24%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간접 명령문의 실례를 보도록 하자.

a) Let’s~

Let’s go! (P)

Let’s go inside and have breakfast. (M)

Let’s play ball! (M)

b) Let me~

Let me show you something. (F)

Mike, let me ask you something. (M)

Let ME be a part of this! (F)

실용영어어법(최인철, 1997)에서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Let me...(제가 ... 하겠습니다) 구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Let me finish.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 보세요.)

Let me handle it. (제가 해보겠습니다.)

Let me take a look at it. (좀 보여 주세요.)

Let me give it a try.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et me tell you something. (있잖아요? : 제안의 표현)

Here, let me give you a hand. (자, 제가 좀 도와드리죠.)

Don’t let me disturb you.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감탄문은 전체 corpus중 총 12회 사용되어 0.26%의 낮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문법서에서 강조하였던 ‘How +형용사+부사+주어+동사’ 어순

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What a +형용사+명사+주어+동사'의 구문만 사용되고 있었다. What 감탄문 어순에 있어서 의사 소통이 일어나는 문맥(context)에 따라 주어+동사는 대부분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What a ride! (M)

What a tragedy! (M)

What a nice surprise! (F)

What an image! (P)

What a great dinner! (M)

Oh! what beautiful lukewarm sentiment! (P)

Oh! what a beautiful morning! (P)

Oh! what a great picture of your son! (P)

2.3 형식(Verb-based Basic Structures)

잠시 문법 교육에서 주의해야할 형식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 Student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Greenbaum & Quirk, 1995)과 실용영어어법(최인철, 1997)에서는 기존의 문법 형식에서 무시하던 부사구를 하나의 형식으로 인정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과 달리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문장 분석이 아닌 의미를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영어 습득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도 부사구와 결합된 문장 중 기존의 2형식에서 파생된 형태를 소위 6형식(SVA), 5형식에서 파생된 형태를 7형식(SVOA)라 지칭하였다.

다음은 각 부분에서 발췌한 6형식 문장들이다.

a) He was in the rare flower business. (M)

b) You're on nanny's camera! (M)

- c) And the wedding's on Sunday? (M)
- d) My pajamas are in the suitcase. (M)

위의 예문은 부사구를 제외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be동사의 보어로 사용된 부사 기능어(a, b, c, d)들은 문장 구성의 필수적인 하나의 성분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각 부분에서 사용된 7형식 문장의 예이다.

- a) But let's put all that behind us and enjoy our weekend together. (F)
- b) Keep your snake in its cage for 72 hours. (M)
- c) Your dad keeps you guys under a close watch, huh? (M)

위 실례에서 알 수 있듯이 put 또는 keep과 같은 동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어에 대응하는 목적보어로서의 부사구 등이 함께 위치해야만 의미가 성립되는 문장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6형식, 7형식 문장 구조는 모든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형식은 평균 5%의 사용 비율을 보여 기존의 문법 교육이 의미보다는 기계적 분석에 상당히 치중하여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보다 의미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4 시제(Tense & Aspect)

[표-3] 시제-기본/완료시제 (사용갯수/%)

	기본시제		완료시제	
과거	801/4447	22.13	3/4447	0.06
현재	2121/4447	47.91	190/4447	4.29
미래	219/4447	7.25	1/4447	0.02

[표4] 시제-진행/완료진행시제

(사용갯수/%)

	진행시제		완료진행시제	
과거	63/4447	1.42	0/4447	-
현재	171/4447	3.86	7/447	0.15
미래	5/4447	0.09	0/4447	-

[표-3]에서 제시하고 있듯 현재 시제가 47.91%의 절반 가까운 사용 비율을 보여 현재시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방과 실시간(realtime)에 일어나는 대화 당시에 개인의 의견, 생각, 주장, 느끼는 바 등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 시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보도록 하자.

- a) Well, thanks. I appreciate it. (M)
- b) Oh, you look so beautiful! (M)
- c) Rach, you can't call people at three in the morning. (F)
- d) Am I supposed to go the whole weekend with just these clothes? (M)
- e) I just...I just feel like, you know, we're so close. (F)
- f) Hi, my name is Rachel Green, I have an appointment for Emma. (F)

그 다음으로 과거 시제가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고해 볼 때 과거 시제가 평균 10% 사용되어 문어체에 비해 과거시제의 사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She lied! (F)
- b) Dad was OK with this? (M)
- c) What happened to you two? (F)
- d) You know, I flew a long way to see my loving wife. (F)
- e) I went out with this girl last night and half way through our date I realized I already slept with her. (F)
- f) Every time I thought about what you said, I started crying. (F)

현재 완료는 4.29%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완료시제는 그 의미를 이

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 개념이므로 회화할 때는 입 밖으로 표출(performance)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완료시제가 어느 시점에서 그 이후 어느 시점까지의 일정 기간 내에 일이 일어났음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한 후 발음으로 반복 연습시켜 내재화(acquisition) 시킬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It's been an hour. (M)
- b) Welcome home. I've missed you. (M)
- c) Ok, I haven't had a real boyfriend, you know. (F)
- d) I've seen these advertised on TV. (F)
- e) Alright, thanks, Oh! hey! have you talked to Chandler? (F)
- f) I've said grace at many... a dinner table. (M)

위에 제시된 실례 (a~f)를 학습자들에게 영어로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면 대부분이 과거 시제로 표출(performance)하는 학습자가 대부분 일 것이다. 현재 완료 시제는 영어 구문의 중요한 시제로 살아있는 구문을 가능한 많이 접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표4]에 제시되고 있듯 현재진행형은 3.86%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원어 민들은 가까운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때 현재진행형을 즐겨 사용하고 있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 놓인 국내 학습자들이 주의 깊게 봐둘 구문으로 여겨진다.

· 가까운 미래

- a) Denny, I'm lending Greg your jacket. (M)
- b) And she's letting me borrow the car. (P)
- c) You're getting married in two weeks? (M)

· 의지미래

- a) You're never leaving the apartment! (F)
- b) You're not going to school without breakfast inside you. (P)

중·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현재완료진행은 have p.p. ~ing라고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암기 학습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구어체 구문 언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완료진행시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는 무의미한 시제임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시제 또한 그 쓰임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미래 시제는 7.25%의 사용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will이 사용된 미래시제는 5.87%, be going to가 사용된 미래시제는 1.37%로 나타났다.

Be going to와 will을 비교해 볼 때 예측의 의미는 공통적이지만, be going to에는 용의(willingness)의 감정이 내포되지 않는다.

· **will**

- a) Will you marry me? (M)
- b) Greg, we'll get you something to wear from Jack's closet. (M)
- c) OK, I'll try. (F)

· **be going to**

- a) Besides, y...you know, everything is gonna be fine. (F)
- b) Oh-oh, wait, my mother is gonna be here any minute. (P)
- c) Now he's gonna know it was me! (M)

또한 be going to의 (a, b, c) 실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원어민들은 be going to를 be gonna로 발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는 일선 영어 교육 현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학습자들이 be going to를 be gonna로 발음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자연스러운 발음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용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고 설명하는 문법책이 있으나 이는 살아있는 영어를 잘 몰라 범하는 실수로, 실제 동작의 느낌을 주는 동작 형용사는 회화에서 자주 진행형으로 쓰인다.

실용영어어법(최인철, 1997)에서는 동작 형용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례를

잘 제시하고 있어 구문 학습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 He's being sarcastic.

((지금 말하고 있는 동작으로 보아) 그는 빈정대고 있다.)

b) You're being modest. ((지금 행동을 보아하니) 겸손하시군요.)

c) She's being stubborn.

((지금 그녀의 행동으로 보아) 그녀는 고집 세게 나온다.)

e) You're not being fair. ((지금)당신 행동은 편파적이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실례이다.

a) I'm being honest, really. (M)

b) I'm just being humorous. (M)

2.5 조동사(Modal Verbs & Auxiliaries)

조동사는 '보조동사'로 이해하여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말하는 이의 감정을 잘 보여 줌으로써 대화의 분위기/양태(mode)를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다음은 실례를 통해 조동사에 따라 문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a) You **won't be able to** master English in a year or so.

(~할 수 없을 것이다.)

b) You **may not be able to** master English in a year or so.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위의 실례 a)는 주장이 강해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나 b)는 주장이 다소 약해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덜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조동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상의 차이가 상당히 커져서 의사 소통시 상대의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조동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석 결과 총 4447 corpus중 866개의 조동사가 사용되어 19.47%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2.5.1. 조동사 do

[표-5] do (사용갯수/%)

강조	13/38	34.21
대동사	20/38	52.63
도치	5/38	13.15

조동사 do는 전체 조동사 중 3.81%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조동사 do는 구어체, 문어체 모두 빈번히 사용되는데, 특히 강조의 do는 문어체 보다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화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보도록 하자.

- a) I actually did sleep with her. (F)
- b) You know? Come to think of it, it does feel Rubella-like! (F)
- c) It's just that we do have some large parties waiting. (F)
- d) When I told them what I did remember, that's when the pages filled in. (P)
- e) Right, we do have a table for two available. (F)

2.5.2 can/could

[표-6] can/could (사용갯수/%)

공손한 요청	14/187	7.48
능력	168/187	89.83
허가	5/187	2.67
추측/목적	0/187	-

조동사 can은 전체 조동사 중 21.59%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전체 조동사 중

에 can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그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can은 능력/허가/공손한 요청/추측/목적의 5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가정법 조동사 could는 차후 아래에서 언급 될 것이다.) 분석 결과 능력의 의미로 사용된 비율이 89.83%를 차지하여 압도적 비율을 보여 구어체에서는 능력의 can이 가장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a) I just don't think I can bear it. (P)
- b) Uh huh, sure, yeah. How can you not remember me? (M)
- c) Ok, I can't do this. (P)
- d) I can't believe you guys are moving. (F)
- e) Alright, I can't, I can't wait that long. (F)

능력의 can외에 공손한 요청을 의미하는 can의 사용 비율이 뒤를 이어 구어체에서 그 쓰임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고 회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 a) Can I make a special request? (M)
- b) No, no, no! Look, Carol, can I call you Carol? (F)
- c) So can we please drop this? (P)

2.5.3 may/might

[표-7] may/might (사용갯수/%)

추측	17/17	100.00
may	-	35.29
might	-	64.70
허가/양보/목적	-	-

조동사 may/might는 전체 조동사 중 1.96%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May/might는 추측/허가/양보/목적의 4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회화체에서는 추측의 의미 이외의 쓰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의 실례에서 보여지듯 추측의 may/might의 적절한 사용은 말하는 이의 추측 감정을 잘 보여주어 대화 분위기

기를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 a) And then we may never get home. (P)
- b) Actually, you may be in luck. (P)
- c) And honey, Pam thinks he might be the one. (M)
- d) Since you liked to paint, it might help to. (P)

may/might 는 might의 추측 의미가 더 약하게 사용된다.

2.5.3 will/would

[표-8] will/would (사용갯수/%)

미래	159/164	96.36
고집	4/164	2.42
습관/경향/소망	-	-

will/would는 전체 조동사 중 19.05%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전체 조동사 중 can 다음으로 사용 비율이 높아 will 또한 구어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ill/would는 미래/공손한 요청/고집/습관/경향/소망의 여섯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corpus 분석 결과 미래, 고집 이외는 그 쓰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정법 조동사 would는 차후 아래에서 언급 될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will이 ‘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집’의 will은 그 쓰임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 살아있는(authentic) 실례를 많이 제시하여 유의미한(meaningful)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고집의 의미로 사용된 will의 실례이다.

- a) No, sorry, that bag won't fit. (M)
- b) It's been hours and it won't stop crying. (F)

2.5.4 should

[표-9] should (사용갯수/%)

의무/당위성	38/38	100
추측/주관적 판단	-	-

조동사 should는 전체 조동사 중 4.38%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조동사 should는 고어체·법률문서/의무·당위성/추측/주관적 판단의 의미로 사용된다. corpus 분석 결과 의무/당위성의 의미 이외에 다른 쓰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Should 조동사는 절대적 의무의 뜻을 지닌 must와 달리 제안/당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어조가 다소 약한 편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should 본래 의미를 잘 몰라 should를 써야하는 상황에 must를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should의 쓰임을 잘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I think you should take the job. (F)
- b) Maybe we should just eat now. (F)
- c) He should be out shortly. (M)
- d) You should know the truth. (P)
- e) So uh...I guess we should...make it official, huh? (F)
- f) But you should know she is so much fun, a wonderful person. (F)

2.5.5 must/have to

[표-10] must/have to (사용갯수%)

must	8/83	9.63
강한 추측	6/8	75
의무	2/8	25
have to	63/83	75.9
강한 추측(have got to)	26/63	41.26
의무	37/63	58.73
don't have to	12/83	14.45

must/have to 는 전체 조동사 중 9.58%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기존 영문법 책에는 must에는 강한 추측, 단정 뜻이 있지만 have to에는 없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p.62)에서는 Have (got) to can also be substituted for must with little or no difference of meaning.라고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구어체 corpus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원어민들은 회화체에서 have to(=have got to)를 must와 같이 강한 추측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 빈도도 must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어민들은 이러한 have to를 have got to으로 사용하여 gotta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국내 학습자들도 이러한 have got to/gotta의 자연스러운 쓰임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corpus에서 제시된 강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have got to의 실례이다.

- a) We've got to find a new pediatrician. (F)
- b) You have got to get over this Joey thing, okay? (F)
- c) You gotta be careful if you call here. (M)
- d) Nah, she's gotta be hot. (F)
- e) Here's what we gotta do. (M)
- f) Sometimes you just gotta do it because it's your job. (P)
- g) And we gotta do this all over again. (P)
- h) But I gotta get up early and I'm not feeling all that well. (P)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강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must의 실례이다. 이 경우 조동사 must가 must be의 형태로 반복 사용되고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구문을 정리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a) You must be Greg. (M)
- b) Must be awfully lucky to have colors like that. (P)
- c) You must be from the great side of the uterus. (P)
- d) Well, well, well it must be five in Tulsa because it's six o'clock IN N.Y.C! (F)

2.5.6 조동사 + have p.p.

[표-11] 조동사+have p.p. (사용갯수/%)

must have p.p	5/22	22.72
would have p.p	5/22	22.72
should have p.p	4/22	18.18
could have p.p	7/22	31.81
may have p.p	1/22	4.54

조동사 + have p.p. 구문은 전체 조동사 중 2.64%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조동사 + have p.p. 구문은 다른 조동사보다 상대적으로 사용 비율이 낮은 편이나 사용 의미가 다른 조동사와 확연히 구별되고 있어 원어민들이 적재적소에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 놓인 국내 학습자들이 이 ‘조동사 + have p.p.’ 구문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식처럼 기계적 암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살아있는(authentic) 실례를 covert rehearsal (혼자 소리내어 상황 재연)하여 부단한 발음 연습을 할 때만이 내재화(acquisition)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실례를 통해 쓰임을 살펴보고자 하자.

a)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이 없다.

You must have had vegetables fresher than that growing up on a farm. (M)

It must have taken forever to build. (M)

There must have been 30 of them. (F)

b) would have p.p. : ...했었을 것이다.

That would've been better. (P)

But it would have never worked out. (F)

Who would've thought it wasn't really about a dragon, huh? (M)

c) should have p.p. : ...했어야 했는데.

I knew I should have married Chandler. (F)

No, Rach, I should have told you sooner. (F)

d) **could have p.p.** : ...할 수도 있었다.

Well, this could have been my serious guy. (F)

Yay! Wow, you could've done that with us there. (F)

e) **may/might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

And I think Emma may have caught it. (F)

2.5.7 조동사 may/will/must/can의 조합

[표12] may/will/must/can의 조합 (사용갯수/%)

will be able to	3/9	33.33
will have to	3/9	33.33
be going to be able to	2/9	22.22
be going to have to	1/9	11.11

조동사 may/will/must/can의 조합은 전체 조동사 중 1.03%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실용 영어 어법(최인철, 1997)에서 조동사끼리의 조합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먼저, 시제를 나타내는 will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may를 쓰고
- 2) 다음으로, 의무/당위성을 나타내는 must를 위치시키며
- 3) 마지막으로, 능력/가능성을 나타내는 can을 위치시킨다.

Corpus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동사 조합이 사용되고 있었다.

a) Sir, you will have to check that. (...해야 할 것이다) (M)

b) Ah! Damn it! One of these days I'm really gonna have to start listening when he talks about his job. (F)
(...해야 할 것이다)

c) But I don't think I'm gonna be able to make it. (P)
(... 할 수 있을 것이다)

d) Uch, do you think, Monica is gonna be able to smell it? (F)

e) She won't be able to say no. (...할 수 없을 것이다) (F)

f) I'll never be able to do that.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M)

2.5.8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

[표-13]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 (사용갯수/%)

would	87/140	62.14
could	53/140	37.85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가 전체 조동사 중 16.16%를 차지하여 can, will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could보다는 would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법 조동사는 앞으로 있을 일을 가정하여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약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정법 조동사는 말의 어조를 매우 공손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게 하므로 화자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실례이다.

a) would

Greg, would you like to say grace? (M)

Would anybody care for some of oyster Bay's finest champagne?(M)

Would you let us live our lives? (M)

She would never do anything for us to be concerned about. (P)

I would love to talk about all this right now.(F)

b) could

Could you at least try to consider another profession? (F)

Could you zip me up? (F)

Could you please get her attention? (F)

How could you say that? (M)

I could kill guy with these things. (P)

2.5.9 기타 조동사구

기타 조동사 구는 다음과 같다.

: had better, ought to, would rather, may/might as well, may well

[표-14] 기타 조동사구 (사용갯수/%)

had better	9/14	64.28
ought to	2/14	14.28
would rather	-	
may/might as well	3/14	21.41
may well	-	

기타 조동사 중 had better의 쓰임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국내 기존 영문법 참고서에서는 ‘You’d better : ...하는 것이 좋다/낫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표현 사용 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You’d better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접적 명령이나 강한 경고성 의미를 지니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실례를 바탕으로 하여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보도록 하자.

- a) I guess you’d better stand back. (P)
(뒤로 물러서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몰라.)
- b) Better get move on, or you’ll be late for school. (P)
(어서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늦을꺼야.)
- c) Unless you wanna go to prison, you’d better tell me the truth.(F)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걸.)

다음은 might as well의 실례이다.

- a) But I figure, hey, pulling down decent bucks might as well go all out and pop for the full size. (M)
- b) Then, I might as well ... do this. (F)

2.5.10 유사 조동사

유사 조동사는 다음과 같다.

: be supposed to, be about to, be bound to, be due to, be/get used to

[표15] 유사조동사

(사용갯수/%)

be supposed to	19/28	67.85
be about to	2/28	7.14
be bound to	-	-
be due to	-	-
used to	7/28	25
be sure to/be sure of	-	-

분석 결과 ‘...하기로 되어있다’ 의미를 지닌 유사 조동사 be supposed to가 19회 사용되어 전체 조동사의 2.19%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예정/의무/가능의 뜻으로 회화에서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표현으로 영어교육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보도록 하자.

- a) That's supposed to happen. (P)
- b) Am I supposed to go the whole weekend with just these clothes? (M)
- c) I'm not supposed to let the snake out. (M)
- d) But you two were supposed to be together. (F)
- e) Rach, no, no, you know, you're never supposed to wake a sleeping baby. (F)

2.6 준동사(Verbals)

준동사는 동사가 주어의 술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표현될 때 나타나는 여러 동사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태에 따라 to부정사, 동명사, 분사(현재/과거)로 분류한다. 기능적으로 to부정사는 명사(~하기, ~하는 것), 형용사(~할/

하는), 부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등)의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명사(~함)의 역할만 담당한다. 준동사는 전체 corpus의 12.86%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준동사는 구어체뿐만 아니라 문어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구어체 구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준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16] 준동사 (사용갯수/%)

To부정사(To-Infinitives)	308/572	53.84
원형부정사(Bare Infinitive)	43/572	7.51
동명사(Gerund)	78/572	13.46
분사(Participle)	144/572	25.17

2.6.1. To부정사(To-infinitives)

[표-17] To부정사-명사적용법 (사용갯수/%)

주어(Subject)	15/204	7.35
보어(Complement)	1/204	0.49
목적어(Object)	188/204	92.15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전체 To부정사 중 66.23%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목적어로 사용되는 비율이 92.15%의 지배적 사용 비율을 보였다. Writing 스타일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헌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고해보면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목적어로 사용된 비율이 최고 60%의 사용 비율을 보여 구어체 구문은 명사적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예문은 원어민들이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동사인 want의 사용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want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취한 후 to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목적어 없이 바로 to 부정사만을 취하기도 하는 중요한 동사이다.

· **want + to 부정사**

- a) And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you. (M)
- b) Oh! no. He doesn't want to hear that. (P)
- c) So you wanna go have lunch? (F)
- d) You wanna hear a story? (F)
- e) I wanna try to respect his rules, OK? (F)

· **want + 목적어 + to 부정사**

- a) I want you to pick out your problem, a problem that's been bothering you all week. (M)
- b) I want you to know that I really, I really, really love you and... (M)
- c) You want me to massage your neck? (F)

원어민들은 ‘want + to 부정사’의 경우 want to를 wanna로 발음하여 마치 한 단어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want + 목적어+ to 부정사가 사용된 경우는 to를 발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실시간 대화(real-time)라는 의사 소통 상황에서는 자기 의견,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영어 단어를 하나 하나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한꺼번에 발음으로 기억해두어야만 회화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적 용법 중 보어로 쓰인 경우는 0.99%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격식체인 문어체와 일상 생활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구어체 구문의 큰 차이로 보여진다.

다음은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8] To부정사-형용사적 용법	(사용갯수/%)	
일반적 표현	41/49	83.67
be to 용법	8/49	16.32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전체 To부정사 중 15.9%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우리말 표현 방식과 차이가 큰 to부정사의 형용사적 구문/표현은 잘 생각나지 않으므로 관용적인 표현처럼 기억해야겠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실례이다.

- a) I've got something to say. (M)
- b) There's nowhere to go. (P)
- c) There's nothing to be ashamed of. (P)
- d) Hey, Gunther, can I get a couple of blueberry muffins to go? (F)
- e) You've still got a lot of packing to do. (P)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 be to 용법은 다소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전체 형용사 용법 중 16.32%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격식체에서 사용되는 be to 용법이 구어체 구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분석 결과 이는 영화 Pleasantville의 극중 인물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어 일상 생활의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은 영화 Pleasantville의 극중인물이 연설 도중 사용하고 있는 be to 용법의 실례이다.

- a) Two all citizens of Pleasantville are to treat each other in courteous and pleasant manner. (P)
- b) Now, it seems to me that the first thing we have to do is to separate out the things that are pleasant from the things that are unpleasant. (P)

실용영어어법(최인철, 1997)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의 관용적 표현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놓고 있다.

have something/nothing to do with
(...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없다)

I've got an a lot of work/studying to do. (공부/일할게 많다.)

I've got an airplane to catch.(비행기 타러 가야한다.)

I've come a long way,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Way to go! (그렇지! / 잘하는거야!)

You'll be the first person to know.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 줄게.)

이어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9] To부정사-부사적 용법 (사용갯수/%)

목적	28/55	50.90
원인	8/55	14.54
결과	19/55	34.54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전체 To부정사 중 17.85%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부사적 용법은 목적/원인/결과의 의미로 사용된다. 구어체 corpus 분석 결과 대체로 고른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고해보면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 지배적 사용 비율을 보였고, 원인/결과의 의미로 사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구어체에서는 목적 이외에 원인/결과가 각각 14.54%, 34.54%의 꽤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구문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문어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 특징을 갖는 반면 구어체는 감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Corpus에 제시된 부사적 용법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목적

- a) I would never lie to get someone into bed. (F)
- b) Okay, the ring fell on the floor and I went down to pick it up. (F)
- c) I had to come to say good-bye. (M)
- d) Yeah. Just to be sure, I'm gonna call Dr. Wiener. (F)
- e) One time I was about to leave Ross to go to the beauty parlor and he got so upset. (F)

· 원인

- a) Hey, glad to hook you up. (F)

- b) Hey, Mike! Sorry to just drop by like this. (F)
- c) Happy to see you. (M)
- d) Must be awfully lucky to have colors like that. (P)

· 결과

- a) I am personally mortified to be your sister. (P)
- b) You two are so meant to be together. (F)
- c) Every time I thought I'd found someone, they'd turn out to disappoint me. (P)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은 to 부정사 앞에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어 관용적 표현으로 지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6.2 원형부정사(Bare Infinitive)

[표-20] 원형부정사 (사용갯수/%)

have	5/43	11.62
let	22/43	51.16
make	12/43	27.90
지각동사(see, watch)	4/43	9.3

원형 부정사는 전체 준동사 중 7.51%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구어체 corpus 분석 결과 원형부정사가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 중 사역동사의 보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원형부정사가 지각동사의 보어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배웠는데, 분석 결과 원어민들은 원형 부정사를 사역동사의 보어로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역 동사 have, make, let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have

When he gets back, have him give me a call, OK? (M)

Oh, Jack, that's what you had your sources check out? (M)
 Hey! So what's the big news you had us rush all the way over here for? (F)

b) make

But cats make you work for their affection. (M)
 Doesn't make me feel younger. (F)
 Please don't make me go there! (P)
 Actually, you know what? That whole thing with Rachel made me realize that maybe I'm ready for a more serious relationship. (F)

c) let

Sweetie, let me be a part of this. (F)
 I can't let you do that. (P)
 Would you let us live our lives? (M)
 Wow, he's really not letting this go, is he? (F)

2.6.3 동명사(Gerund)

[표-21] 동명사 (사용갯수/%)

주어	6/77	7.79
목적어	71/77	92.20
목적어 전·목	33/71	46.47
보어	-	-

동명사는 전체 준동사 중 13.46%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주어로 사용된 경우 To-부정사보다 동명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보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to-부정사가 동명사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다. 주어 위치에 to-부정사가 오면 부사적 용법으로, 보어 위치에 동명사가 위치하게 되면 자칫 현재 진행형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해를 돕기 위

해 은연중에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살아있는 문장을 많이 접하여 이러한 구문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발음 연습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명사 중 절대적 사용 비율을 보인 목적어 용법의 실례를 살펴보자.

- a) Try feeding her again. (F)
- b) David, stop stressing! (P)
- c) But you don't remember sleeping with her. (F)
- d) It's been hours and it won't stop crying. (F)

2.6.4. 분사(Participles)

[표-22] 분사 (사용갯수/%)

분사	갯수	비율(%)
현재분사	53/98	54.08
형용사화	33/53	62.26
목적격보어	12/53	22.64
주격 보어	7/53	13.20
과거분사	45/98	45.91
형용사화	25/45	55.55
목적격보어	9/45	20
주격보어	11/45	24.44

분사는 전체 준동사 중 17.13%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분석 결과 현재분사, 과거분사 모두 형용사화된 분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래의 예문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분사 활용의 용례이다.

a) 현재분사

A kind and gentle and... accommodating God. (M) → 명사 수식

Thank you, Greg. That was interesting, too. (M) → 형용사화

OK, I just got the Chandler's room and

I caught him molesting himself. (F) → 목적격 보어

b) 과거분사

- Okay, I'll have the fixed salad and the duck. (F) → 명사 수식
 I feel so used. (F) → 형용사화
 Hey! You can't leave your vehicle unattended! (F) → 목적격 보어

2.7 분사구문(Participle Clauses)

분사구문(participle clause)은 복문을 간략하게 만들기 위한 언어의 경제성을 달성하고자 사용하는 구문이다.

[표23] 분사구문 (사용갯수/%)

부대상황	12/17	70.58
이유/때/양보/조건	3/17	17.64
with+명사+과거/현재분사	2/17	11.76
접속사 생략 구문	17/17	100

Corpus 분석 결과 분사구문은 전체 corpus중 0.38%의 아주 낮은 사용 비율을 보여 비격식체의 구어체 구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의 경우 분사구문이 최고 7.4%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어 문어체와 구어체 구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사구문은 부대상황/이유/때/양보/조건외의 의미로 쓰이는데 사용 비율은 낮았지만 본 연구에 나타난 분사구문의 대부분이 부대상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분사 구문의 접속사는 100%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부대상황과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이다.

a) 부대 상황

They were going up the river, trying to get free. (P)

Here you go from woman to woman, meaningless experience to meaningless experience never even worrying that it doesn't turn into anything serious. (F)

Thus I'm not distracted, worrying about Emma how she's doing at home.(F)

b) 원인

I mean, not knowing you well and all. (P)

2.8 법(Mood : Tone/Attitude)

법(Mood : Tone/Attitude)은 일반적으로 직설(indicative), 명령(imperative), 가정(subjunctive)의 3가지로 구분하고, 발화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입장, 어조 등의 ‘마음가짐’을 나타낸다. 화자의 심리, 태도(tone/attitude)를 묘사하는 어조에 관한 구문 규칙으로 동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법 구문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말을 하려면 쉽게 나오지 않는 어려운 구문 중 하나이므로, 가정법 구문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음을 통해 구문을 기억하여 살아있는 구문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겠다.

[표-24] 법 (사용갯수/%)

직설법	3927/4447	88.30
명령법	333/4447	7.25
가정법	187/4447	4.20

[표-25] 가정법 (사용갯수/%)

가정법 과거	14/187	7.48
가정법 과거 완료	0/187	-
혼합 시제 가정법	3/187	1.60
if 조건절	61/187	32.62
I wish... 가정법	3/187	1.60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 사용 가정법	106/187	56.68

기존의 영문법 교재에서는 가정법 과거는 「if + S + were/동사의 과거형, S + 동사의 과거형 ~」,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 S + had p.p., S + should/would/could/might + have p.p.~」의 구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

한 규칙을 수학 공식처럼 외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시험 쳐왔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원어민들이 현재 사용하는 구어체 corpus에 나타난 가정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 사실/과거사실을 반대하는 가정법 과거/과거완료 구문이나 I wish... 구문은 사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를 사용한 가정법 구문과 if 조건절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존 문법서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가정법 구문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정법 구문중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정법 조동사 would, could를 활용한 구문은 앞으로 있을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약화시켜 말의 어조를 매우 공손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게 한다.

예를 들어 'I'd love to do some volunteer work'를 살펴 보면, I would love to..는 가정의 would 조동사를 사용하여 '가능하다면 나는 지금 ..를 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하여, 'I love to do some volunteer work' 나는 지금 ...를 하고 싶다와는 달리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켜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게 된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실례이다.

· 가정법 조동사 **would** 사용 구문

- a) That'd be great. (M)
- b) I would love to go out with you. (P)
- c) Would you like one? (F)
- d) Greg, would you like some yams? (M)
- e) Really, it would be good for you. (P)
- f) Oh, would you say this was the most upset you could be? (F)
- g) You promised you wouldn't say anything. (P)

· 가정법 조동사 **could** 사용 구문

- a) I could kill guys with these things. (P)
- b) We could use you in Tulsa. (F)
- c) They said it could be up to a year. (F)
- d) Hell, you could have flood! (P)
- e) Oh, Ross, could you stop by the coffee house and get me a

muffin? (F)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며 하나의 의사소통기능을 나타낼 때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미묘한 감정을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법(문장 형태)을 활용한다. (Brazil, 1995) 위의 문장들은 굳이 가정법 조동사를 활용하여 쓰지 않으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직설법 문장이 된다. 가정법 조동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좀 더 공손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의사 전달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회언어학적 의사소통능력이 좋은 것이고 ‘말 잘한다’는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새로운 구문을 학습할 때는 표현에 녹아있는 의도, 격식, 태도, 감정까지 음미하면서 습득해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영어 학습만이 진정한 회화 실력을 갖추는 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 사용 구문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인 if 조건절 구문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f 조건절 구문 형태 중 반복 사용되어 나타나는 두 개 구문을 제시하여 if 조건절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a) If + S + 현재형 동사~, S + would/should/could + 동사 원형~.

And if you have a plan, you should stick to it. (M)

If you think this is bad, you should see him. (M)

If you don't go out with this guy, we could throw their whole universe out of whack. (P)

If you put your thinking on, you could win \$1,000 in our Pleasantville trivia contest, plus free trip to the Pleasantville of your choice. (P)

If I smoke, my wife would kill me. (F)

If I lighten up, would you consider marrying my daughter? (M)

b) If + S + 현재형 동사~, S + will + 동사의 원형~.

If I don't, who will? (P)

But if I fall asleep now, I'll get five hours sleep. (F)

If we're not back in an hour, we'll reschedule for the morning. (F)

If you put the pie in 40 minutes later, it'll be hot in time for dessert. (P)

If we have sex again, it'll double our chances of getting pregnant. (F)

다음은 가정법 과거 구문 중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가정법 what if...? 구문의 실례이다. 관용적 구문이므로 한 단어처럼 발음 연습하여 잘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다.

- a) So what if he took the MCATs? (M)
- b) What if I was a bombardier? (F)
- c) What if she jumped out the basinet? (F)

명령법은 7.25%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고해 보면 명령법 사용 비율이 최고 2.5%에 지나지 않아 명령법 구문은 일상 생활의 회화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corpus에 제시된 명령문 실례를 살펴 보자.

- a) Come here! (M)
- b) STOP IT! (P)
- c) Wait a minute! (P)
- d) Huh-huh, shut up, Monica! (F)
- e) Please, just pull yourself together, okay? (F)
- f) Oh, my god, don't let people know. (F)
- g) Don't joke with me, okay? (F)
- h) DO NOT DISTURB! DO NOT DISTURB! Monica! (F)

2.9 수동태(Passive Voice : Subject ← Object)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동작의 주체로 바꾸는 구문이다. 이러한 수동태 구문은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서나 지극히 문어체적인 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실제 일상생활의 구어체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구문이다.

[표26] 수동태	(사용갯수/%)	
수동태	97/4447	2.18

분석 결과 수동태는 전체 corpus의 2.18%의 사용 비율을 보여 일상의 회화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pus에 제시되고 있는 수동태 구문을 분석해 본 결과 원어민들은 수동태의 관용적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었고, be+p.p 형태뿐 만 아니라 get+p.p. 형태 또한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분석 자료에 나타난 수동태 관용 표현의 실례이다. 이러한 관용 표현은 의미는 이해하기는 쉬우나 'by'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므로 실제 회화에서 사용하려면 쉽게 나오기 힘들어 살아있는(authentic) 표현을 통하여 잠재 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어법 학습이 이루어져야겠다.

Corpus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실례를 살펴보자.

- a) I was just worried about her. (P)
- b) I was scared of your dad when he was a florist. (M)
- c) But frankly, Sir, I'm terrified of being your son-in-law. (M)
- d) Cause Bud didn't answer the phone and they were worried about him. (P)
- e) Hey, Ross, I know you're pissed at me. (F)
- f) But she's not opposed to threesomes. (M)
- g) You are charged with desecration of public building and with the intentional use of prohibited paint colors in violation of the Pleasantville code of conduct and laws of common decency. (P)
- h) So when I came in here to see if you wanted to maybe start things

up again, you were engaged to my best friend. (F)

위에 제시된 관용적 표현 이외에도 분석 결과 구어체 구문에 나타난 수동태 구문은 관용적 구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학습자들은 수동태 구문 규칙에 따라 구문 바꾸기 연습에 중점을 둔 결과 모든 능동태 구문이 수동태로 바뀌어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기계적 암기식 문법 학습의 결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I found the book interesting.을 수동태로 고치면 The book was found interesting by me. 이 되는데 이는 평생동안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할 문맥이 결여된 인위적 표현이 되고 만다. 원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동태 구문은 관용적 표현으로, 국내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표현을 가능한 많이 접하여 습득(acquisition)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어민들은 be + p.p. 구문뿐만 아니라, get + p.p. 구문 또한 즐겨 쓰고 있었는데, 학습자들이 중·고등학교 수동태 구문은 무조건 be + p.p.를 사용한다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결과 get + p.p. 구문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be + p.p.구문은 상태, 격식적,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get + p.p.는 동작/과정, 비격식적, 능동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주어가 자신이 행한 동작의 책임을 지게되는 뉘앙스를 갖게 된다.

다음의 사례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a) He is kicked out of boarding school.

He gets kicked out of boarding school. (M)

b) I was caught in the rain.

I got caught in the rain. (P)

c) I was recently transferred to triage.

I recently got transferred to triage. (F)

d) Well, I was paid, but also it feels, you know, good.

Well, I get paid, but also it feels, you know, good.(F)

2.10 관계사(Relatives)

우리말에서는 형용사절이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데(...하는+명사), 영어에서는 관계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하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말을 할 때 생각한 것을 표출하는 순서가 바뀌어야 하므로 관계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겠다. 관계사는 기능적으로 관계대명사/관계부사/관계형용사로 나뉜다.

의미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관계사의 비율은 평균 3.23%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어체 구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계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0.1 관계대명사(Relative Pronouns)

[표-27] 관계대명사 (사용갯수/%)

who	S	7/95	7.36
	O	1/95	1.05
	계속적 용법	1/95	1.05
which	S(계속적 용법 포함)	1/95	1.05
	O(계속적 용법 포함)	2/95	2.10
that	S	15/95	15.78
	O	6/95	6.30
what		62/95	65.26

관계 대명사는 전체 관계사 중 65.06%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 중 what이 65.26%의 높은 사용 비율을 보여 구어체 구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계대명사 what은 ‘...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간결성을 중요시하는 구어체에서 그 쓰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Corpus에 제시된 다음 실례를 살펴보자.

- a) Here's what we gotta do. (M)

- b) See? This is what I was afraid of. (P)
- c) That's just what she wants. (P)
- d) That's what you call it? (F)
- e) So that's what these things do? (P)
- f) No, no, that's not what I meant. (F)
- g) Well, here's what it's supposed to look like? (P)
- h) Yes. I mean, it's what we always planned. (F)

위 실례 (a~h) 에서 나타나듯 관계 대명사 ‘what’ 구문은 this(that, it) is what..., here's what... 의 형태(pattern)가 반복 사용되고 있어 이 구문 형태를 정리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관계대명사 what은 ‘What ~ is ... : ~한 것은 ...이다’와 같이 말의 중요 부분을 제시(topicalization)하여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Well, what I mean is Mary Sue's little different lately. (P)
- b) What I want to know is, if they've never lost before and they've never tied before, isn't that winning 'em all. (P)
- c) Now, what I saw in the closet is not the optimum position for conceiving a child, although it might feel good. (F)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 the thing를 포함하고 있고 ‘...한 것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기계적 암기에만 치중해왔는데 실시간의 의사 소통이라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법 지식만을 배운 학습자들이 우리말에 없는 생소한 문법 지식을 머리 속에 떠올려 표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관계대명사 what이 사용되고 있는 살아있는(authentic) 문장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의 한국 영어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일 것이라 판단된다.

원어민들은 계속적 관계대명사 사용에 있어 who보다 which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사람보다는 사물, 상황, 시기, 사건 등을 설명할 때 서술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corpus에 제시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a) Because I was told I'd get a free dinner, which I didn't. (F)

b) And that I'd meet a pretty girl, which I did. (F)

위의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의 절을 선행사로 취하고 있다. 위 예문과 같이 문장/절/구를 선행사로 취하는 구문은 구어체에서 매우 많이 활용하는 구문으로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관계대명사 목적격, 주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전체 관계사 중 24.5%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존속 비율이 7.2%인데 비해 생략 비율이 17.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거의 생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10.2 관계부사(Relative Adverb)

[표-28] 관계부사 (사용갯수/%)

when(the time 100% 생략)		4/43	9.30
where	선행사 생략	7/43	16.27
	선행사 사용	4/43	9.30
how	선행사 the way 생략	10/43	23.25
	관계부사 how 생략/ 선행사 the way 사용	5/43	11.62
why(the reason 생략 100%)		13/43	30.23

관계부사는 관계사 전체의 29.45%을 보인다. 관계부사 where, when, how, why 모두 고른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관계부사 how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행사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배웠는데, 분석 결과 관계대명사 how를 생략하고 선행사 the way를 사용하는 경우가 11.62%의 사용 비율을 보여 선행사 the

way만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the way how와 같이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기존에 배운 것과 같이 그 쓰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실례를 통해 쓰임을 확실히 알아해 둘 필요가 있겠다.

- a) Yeah, that's how I know. (P)
- b) That's how I got my bad hip. (F)
- c) I'll show you how it works. (P)
- d) This conversation is how I got the bullet hole in my head. (F)
- e) Alright, is this really the way you want a baby to be conceived? (F)
- f) You really want her back the way she was? (P)

관계부사 why는 기존에 배웠던 바와 같이 선행사 the reason이 100% 생략되고 있었다.

다음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That's why you look so familiar! (F)
- b) That's why she was weird. (F)
- c) But the point is that...that I understand why you did it. (M)
- d) I still don't know why we're doing this. (P)

관계부사 where는 장소, 상황, 사건 등을 예시하는 경우 요긴하게 사용된다. 선행사 the place생략 비율과 선행사 사용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두 가지 쓰임 모두 잘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관계부사 where의 실례이다.

a) 선행사 생략

- That's where all the top nurses work. (M)
- Stay where you are! (P)
- Maybe that's where they get that saying. (M)
- No, that's just where you were going. (F)
- I told you where I was. (F)

b) 선행사 사용

Hey, remember the one where I punch you in the face for not being cool?! (F)

Remember the one where Bud lost his cousin, when he was supposed to be watching him? (M)

Oklahoma where the wind comes sweeping down the plane. (F)

관계부사는 Writing Styles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을 참고해 볼 때 논술체 문어체에서는 평균 12.1%을 보인데 반해 구어체에는 29.45%의 높은 사용 비율을 보여 문어체보다 구어체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구문으로 나타났다.

2.10.3 복합 관계사

[표29] 복합 관계대명사 (사용갯수/%)

whoever/no matter who	-	-
whatever/no matter what	8/12	66.66
whenever/no matter when	3/12	26
whenever/no matter where	-	-
however/no matter how	1/12	8.33

복합 관계사는 전체 관계사의 8.21%의 사용 비율을 보여 비격식체인 구어체 구문에서는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rpus에 제시된 복합 관계사 쓰임 중 ‘...하든지’의 양보 뜻으로 사용되는 복합 관계대명사 whatever(no matter what)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의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자.

a) The Sooner State, whatever that is. (F)

b) Well, I can do whatever I want! (M)

c) But you promised to love him no matter what. (M)

e) No matter what I did, I couldn't fall asleep. (F)

2.11 접속사(Conjunctions : Linking Phrases / Clauses)

이 부분은 시간, 원인/이유, 목적/결과/방법, 양보/대조, 첨가/추가, 조건, 상관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등으로 구분되어 의미에 따른 접속사의 유형 분석이 이루어진다.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연결, 대조, 전환, 부연 등의 다양한 형태적 의미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Writing Essays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고해 보면 논술체에서는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가고 있는데 반해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구어체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 접속사의 쓰임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rpus 분석 결과를 통해 구어체 구문에 사용되는 접속사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11.1 시간

[표-30] 접속사-시간 (사용갯수/%)

as long as	1/98	1.02
as soon as	3/98	3.06
after	1/98	1.02
before	12/98	12.24
by the time	2/98	2.04
once	4/98	4.08
until(til)	8/98	8.16
when	48/98	48.97
while	4/98	4.08
then	2/98	2.04
유사접속사	13/98	13.26

분석 결과 시간의 접속사가 전체 접속사 중 20.2%의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고, ‘...할 때’의 의미를 지니는 when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다음은 when이 사용된 실례이다.

- a) I hate it when you do that (F)
- b) Promise to call me when you land. (F)
- c) Maybe you only know it when it's gone. (P)
- d) When people do this, I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P)
- e) And when I knelt down to pick it up, Rachel thought I was proposing! (F)
- f) When two people really love each other very, very much, they want to share that. (P)

그리고 원어민들은 일반 접속사 외에 접속사 기능을 하는 유사 접속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어체의 중요한 구문으로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드시 지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유사 접속사(접속사 기능을 하는 표현)가 사용되고 있었다.

: the first time, the whole time, every time, one minute, the second, any time, every chance, one minute~ the next~.

다음 실례를 살펴보면서 유사 접속사의 의미와 그 쓰임을 알아두도록 하자.

- a) Margaret, you can come over and make those oatmeal cookies for me anytime you want to. (언제라도) (P)
- b) Every chance he gets, he tries to squat and bury. (M)
(기회가 있을 때마다)
- c) Rach, I told you, you can't call him every time any little thing come up. (...할 때마다) (F)
- d) Every time I thought about what you said, I started crying.
(...할 때마다) (F)
- e) One minute everything's fine, the next... (F)
(잠깐 ...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다음엔)...) (F)
- f) Doesn't she look just beautiful the first time you met her? (P)

(처음 ... 했을 때)

g) Jack, you didn't like me from the second I walked in here! (M)
(...하자마자)

h) You see, The whole time we were in Civics together, I really wanted to come over and sit next to you, but you were always sat between Lisa Anne and Peggy Jane. (...하는 내내) (P)

2.11.원인/이유

[표-31] 접속사-원인/이유 (%)

because	25/36	69.44
cause(cos)	6/36	16.66
now that	1/36	2.77
as	3/36	8.33
since	1/36	2.77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전체 접속사의 7.5%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 원어민들은 because를 cause라고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16.66%로 나타나 구어체 구문의 중요한 특징으로 분석된다.

접속사 cause의 사용 실례를 살펴보자.

a) Cause that's just not what it's like. (P)

b) I kinda took it the hardest cause I was the youngest. (M)

c) Y'know, I can't even worry about that right now, cause I got the cutie little baby. (F)

2.11.3 방법/목적/결과

[표-32] 접속사-방법/목적/결과 (사용갯수/%)

so~that...	3/29	10.34
like	25/29	86.20
as	1/29	3.33

분석 결과 방법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like가 86.2%의 절대적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방법의 like 구문은 looks like~, seems like~, feel like~, sounds like~ 와 It's like~구문의 형태(pattern)가 반복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의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I just...I just feel like, you know, we're so close. (F)
- b) And it seemed like she didn't want to, either. (M)
- c) Sounds like they're hard to please. (F)
- d) Well, looks like we've got another wedding to plan. (M)
- e) Wow! Looks like somebody got an "A" in wood shop. (F)
- f) Maybe it's like there's whole piece of you. (P)
- g) But it's like...he didn't show the slightest bit of interest. (F)
- h) No, it's not like you think it's funny or dorky. (P)
- I) Pam, it's not like I'm a rabbi or something. (M)

2.11.4 양보/대조

[표-33] 접속사-양보/대조 (사용갯수/%)

although	4/56	7.14
even if	4/56	7.14
even though	1/56	1.78
but	47/56	83.92

구어체 corpus 분석 결과 but, although, even if, even though와 같은 양보/대

조의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었고, but이 지배적 사용을 보였다.

다음의 양보/대조의 접속사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I love you, Daddy, but you can be a real jerk sometimes. (M)
- b) I don't know what you've done, but you better fix it! (P)
- c) Well, I tried, but people kept coming in. (P)
- d) Oh, wow! This is really flattering, but I'm moving to Tulsa. (F)
- e) Now, what I saw in the closet is not the optimum position for conceiving a child, although it might feel good. (F)
- f) And even if you don't like it, you just gotta do it anyway. (P)
- g) So even though I can't make any promises, I figured if you asked me real nice, I might just be willing to talk about it again. (P)

2.11.5 첨가/추가

[표-34] 접속사-첨가/추가 (사용갯수/%)

and	49/55	89.09
or	6/55	10.9
moreover, furthermore	-	-

첨가/추가 접속사는 등위접속사로 사용된 것보다 종속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등위 혹은 종속 접속사로 구분하는 것은 형태적인 면에 치중하여 의미에 대한 분석을 경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첨가/추가 접속사에는 moreover, furthermore와 같은 다른 접속사가 있지만 분석 결과 구어체 구문에서는 이들의 쓰임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and가 거의 지배적인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Writing Styles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분석(유현근, 2001)를 참고해보면 논술체의 문어체에서는 moreover/furthermore/besides 등과 같은 첨가/추가 접속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필자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첨가 접속사 and/or의 실례이다.

a) 접속사 and

Chandler and I have not seen each other in over a week.

(명사, 명사) (F)

I looked and looked and looked. (동사, 동사, 동사) (F)

You wanna talk about truth and honesty? (명사, 명사) (M)

Are you gonna take my bag and put it there? (동사구, 동사구) (M)

Do you want me to get into the tub and thrash? (동사구, 동사) (F)

Go take a shower, get dressed and come down. (F)

(동사구, 동사구, 동사구)

He took off all his clothes, tucked his penis between his legs and cried out. (동사구, 동사구, 동사구) (F)

b) 접속사 or

You should scream at me, or-or-or curse me, or hit me. (F)

(동사구, 동사구, 동사구)

Are we in this thing alone or are we in it together? (절, 절) (F)

대등한 문법적 언어요소를 접속사로 연결하는 구조를 병렬구조(Parallelism)라고 부르는데 위에 제시된 corpus에서 사용되는 모든 and/or구문은 이를 잘 지켜주고 있었다. 다음은 병렬구조(Parallelism)을 지키지 않아 비문이 된 문장들이다.

* He went to school and hard work.(동사, 명사)

→He went to school and worked hard. (동사, 동사)

* She likes reading, writing and to solve math problems.(동명사, 동명사, to 부정사)

→She likes reading, writing and solving math problems.(동명사, 동명사, 동명사)

이와 같은 병렬 구조(Parallelism)는 학습자들이 언어를 표출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으로 병렬 구조를 지킬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언급되

어제야 할 필요가 있겠다.

2.11.5 조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다음과 같다.

: if, suppose, in case, unless, then, that/this way

[표-35] 접속사-조건 (사용갯수/%)

if	80/88	90.90
in case	3/88	3.40
unless	5/88	5.68
then	-	-
suppose/that way	-	-

분석 결과 if가 90.90%의 절대적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조건 접속사 if는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조해보아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구어체, 문어체 구문 모두 조건 접속사로 if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어체에서는 구어체에서 사용되는 ‘in case ~을 대비하여’의 쓰임은 발견되지 않아 문어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조건 접속사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corpus에 제시된 조건 접속사 if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You gotta be careful if you call here. (F)
- b) And if you have a plan, you should stick to it. (M)
- c) If I can handle a weekend without sex and cigarettes, I can handle your ex-fiance. (M)
- e) If we're not back in an hour, we'll reschedule for the morning. (F)
- f) Barry, if I want to have mud bath with my new boyfriend, that's my business, isn't it? (M)

‘만약 ~라면’의 뜻을 가진 조건 접속사 if는 사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원어민들과 의사소통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 그 중요성은 많이 언급되어 학습자 대부분이 알고는 있으나 표출(performance)은 잘 안되고 있다. 학습자 신변에 직접 관련된 상황의 실례를 많이 들어보게 하여 학습자 스스로에게 필요한 언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in case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You'll need something, in case your suitcase doesn't show up. (M)
- b) Just wear this on the trip in case it gets cold. (P)

2.11.6 상관 접속사

관계 있는 두 어구를 연결하여 주장을 전개하는 상관접속사는 다음과 같다.

- : both A and B, not A but B, B, not A, not only A but also B,
-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etween A and B, B as well as A

[표36] 상관 접속사 (사용갯수/%)

bith A and B	-	-
not A but B	1/8	12.5
not only A but also B	3/8	37.5
either A or B	-	-
neither A nor B	-	-
between A and B	4/8	50
B as well A	-	-

분석 결과 상관 접속사의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원어민들의 일상 대화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Corpus에서는 ‘A 뿐만 아니라 B도~이다’의 의미를 갖는 not only A but also B와 ‘A와 B사이’의 between A and B의 표현 정도로만 나타나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의 실례를 살펴보자.

- a) You're not only the person I love, you're also my best friend... (M)
- b) ...Not only my best friend, but you are also the person that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M)

2.11.7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접속사의 생략

전체적으로 사고/전달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이러한 that은 일상적 대화가 주를 이루는 구어체에서는 생략이 지배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존속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보여 그 쓰임을 잘 숙지해 두어야 할 것이다.

[표-37]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접속사의 생략 (사용갯수/%)

접속사 that	존속	51/381	13.38
	생략	330/381	86.61

분석 결과 사고 동사/형용사 뒤에 오는 접속사 that의 생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사별로 생략 비율을 살펴보자

[표-38] 사고동사/감정 형용사 that 생략 (사용갯수/%)

think	107/250	42.80
know	36/250	14.40
say	30/250	12
believe	13/250	5.20
wish	5/250	2
guess	11/250	4.40
hope	7/250	2.80
figure, feel, promise, decide, realize, understand, notice, tell, assume 등의 사고 동사	34/250	13.6
happy/glad/sorry	7/250	2.80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경우의 실례를 살펴보자.

a) 사고 동사 **think** 뒤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경우

I just thought you were getting champagne. (M)

I thought Chandler was your best friend. (F)

I don't think Greg will be playing with Jinxy. (M)

I didn't think I should be here, either. (P)

I think Greg is a lovely young man. (M)

Daddy! I don't think we need to hear about the specific positions you and mom had sex. (F)

Can I... can I think it's cool that you kiss me and also wanna kiss you? (F)

b) 사고 형용사 뒤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경우

I'm so happy you're home, sweetheart. (F)

Oh, hey! Ross! oh I'm so glad someone's here. (F)

Wow, so glad I changed. (M)

I'm so sorry we left you. (F)

c)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구문이 관용 표현처럼 반복해서 나타나 한 단 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

I bet you would, Panama Red. (F)

I bet he's even gonna hold her hand. (P)

I'm sure you've noticed the same things we all have. (P)

I'm not quite sure you got the right movie. (F)

Are you sure that's what he was doing? (M)

Hey, so are you sure you're ready to go? (M)

You know what? I'm not even sure I can have caffeine. (F)

Yeah, I'm not so sure you should be here when he comes up. (P)

접속사 **that**이 생략되지 않고 존속되어 사용되는 경우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a) 가주어 it ~ 진주어 that 절

You know, it's so surprising that you and Joey have known each other for so long. (F)

b) 보어절을 이끄는 that

But the point is that...that I understand why you did it. (M)

c) 동격의 절을 이끄는 that

I know we haven't been together that long, but the time that we have spent together has been incredible. (M)

d) 사고/전달 동사이지만 that이 존속하는 경우

I don't think that we are. (M)

Rachel, I know that you can. (F)

And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M)

I suppose that Monica will have the ... manipulative shrew. (F)

2.12 특수구문(Structural Variations)

특수한 구문 형태에는 도치, 강조, 생략, 삽입 등이 있다.

Corpus 분석 결과를 통해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특수 구문 형태를 알아보겠다.

2.12.1 도치(Inversion)

우리말에 없는 구문이므로 이해가 어려워 회화에서 활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구문이므로 잘 익히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나타난 구어체 구문의 도치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표39]도치

(사용갯수/%)

장소부사 문두위치	대명사 주어	10/30	33.33
	일반 명사 주어	8/30	26.66
강조 목적의 도치	목적어 도치	3/30	10
	보어 도치	4/30	13.33
	so, nor, neither 도치	4/30	13.33
부정어구 문두 위치		1/30	3.33

장소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 분석 결과 두 가지 규칙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명사 주어를 쓸 경우 ‘장소 부사 + 주어 + 동사’, 그리고 일반 명사 주어가 올 경우 ‘장소 부사 + 동사 + 주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규칙을 공식처럼 암기하는 것은 언어 습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관용 표현으로 잘 숙지해 두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 장소 부사 + 주어(대명사) + 동사

Oh! there he is! (M)

Hey, there he is! (F)

There he goes, your fiancée. (F)

There he is. (P)

Oh, my God, here they come. (P)

Well, here I am. (F)

Here you go. (F)

Here you are. (F)

Here we go. (P)

b) 장소 부사 + 동사 + 주어(일반 명사)

Here's some pancakes and eggs. (P)

Here's new one for all you kids out at Lovers Lane. (P)

Well, here's what it's supposed to look like. (P)

Here's my favorite. (F)

Here's what we gotta do. (M)

Here's one. (M)

Alright, here's something. (F)

See, here's the thing. (F)

다음은 실용 영어어법(최인철,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here, there의 도치구문의 관용 표현이다. 기초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기술(BICS :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를 배양하기 위해 숙어처럼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다.

Here you are/go.(여기 있습니다. - 물건을 건네주면서)

Here we are (at the station). ((정거장에) 다 왔습니다.)

Here we go. (자, 시작합니다. - 기계 작동이나 일을 시작하면서)

There you go. (그렇지요./그렇게 하는겁니다. - 긍정)

There you go again. (아니, 또 그러는거야? - 부정)

There goes my money/weekend. (내 돈/주말은 끝장났네.)

다음으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목적어, 보어, 그리고 so/nor/neither을 문두에 위치시킨 도치구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목적어와 보어 도치 구문은 기존 문법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잘 숙지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자.

a) 목적어 문두 위치

TV Time, remember. (P)

Appetizers, entrees, we don't care. (F)

He didn't make it to one of piano recitals, but this he sees! (F)

b) 보어 문두 위치

Both it is, thank you. (F)

Blueberry it is. (F)

Ooh, and treat it is. (F)

Cheeseburger it is? (P)

c) so, nor, neither 문두 위치

So do you! (M)

OK, well, so was this. (P)

Well, so was JC! (F)

Neither do I.(F)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의 도치 현상을 참고해 보면 긴 어구를 짧은 어구로 대치시키거나, 부정어 혹은 부사어구를 문두에 위치시켜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 그리고 if를 생략하는 등의 도치 형태를 이용하여 주장을 부각시키는 목적으로 도치 구문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어체 corpus 도치구문 분석 결과 일상 생활의 비격식적 상황에서는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도치현상은 없었고, 장소 부사구 문두 위치, 문장 강조의 목적으로 목적어, 부사, so/not/neither를 문두에 위치시켜 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12.2 강조(Emphasis)

현대인들의 감정이 점점 더 무디어지기 때문인지 언어면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나타난다. 영어에서도 문어체와 구어체 모두 강조의 구문/표현이 빈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 교육 현장에서 특수 구문 ‘강조’가 구어체 구문에서 사용되는 중요성을 소홀히 해온 결과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데 있어 단순한 부사구 사용에만 그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Corpus 분석을 통하여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구문을 즐겨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 결과가 실제 영어 교육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요한 구문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표-40] 강조

(사용갯수/%)

It ... that/wh~	5/363	1.37
조동사 do	17/363	4.68
재귀대명사	4/363	1.10
반복법	71/363	19.55
부사어 활용	223/363	61.43
부정문 강조	7/223	3.13
wh-의문사	9/223	4.03
ever	19/223	8.52
even	25/223	11.21
all	36/223	16.14
really	58/223	26
that	5/223	2.24
such	5/223	2.24
so	49/223	21.97
right	17/223	7.62
too	3/223	1.34
other adverbs	19/223	8.52
topicalization	24/363	6.61

분석 결과 원어민들은 자신의 의견/주장을 강조(emphasis)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법(repetition)과 부사(adverb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주제문 제시(topicalization)가 뒤따르고 있었고, 조동사 do와 재귀대명사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 또한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반복법과 다양한 부사 사용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 반복법(repetition)

No, no, no. I'd love to. (F)

Relax, relax. (F)

I'm sorry. I'm sorry. (M)

I looked and looked and looked. (F)

I could go on and on. (F)

I want you to know that I really, really, really love you and... (F)

b) 다양한 부사(adverbs)

Well, let's all finish up and get ready to go. (M)

You have it all wrong. (F)

I'm sure you've noticed the same things we all have. (P)

Here's new one for all you kids out at Lovers Lane. (P)

Look at you all grown up. (F)

She was all freaked out about doing it alone. (F)

It's all that animal fat. (P)

But I gotta get up early and I'm not feeling all that well. (P)

We all haven't been together the six of us in such a long time. (M)

I mean, can you ever really trust another human being, Greg? (M)

Nobody has ever been good enough for your Pam. (M)

Have you ever smoked pot? (M)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P)

Hey, he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F)

No way! (P)

Before today I never thought of you two having sex at all. (F)

But maybe you're not ovulating at all. (F)

주제문 제시(Topicalization) 구문은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난 후 주제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문이다(pseudo-cleft construction : Quirk, et al, 1985)

c) 주제문 제시(topicalization)

What I want to know is, if they've never lost before and they've never tied before, isn't that winning 'em all. (P)

Well, what I mean is Mary Sue's little different lately. (P)

All you have to do is answer yes or no. (F)

And all I wanna do is hold on to my bag and not listen to you. (M)

d) 조동사 do

I actually did sleep with her. (F)

My name is Mike, and I do play piano. (F)

We do have a table for two available. (F)

But you did say it. (M)

No! Really? Misery really does love company. (F)

e) 재귀대명사.

I picked them myself. (M)

Y'know what? I'm just gonna go and talk to Rachel myself. (F)

I play a little guitar myself. (F)

It ... that/wh 강조 구문은 문어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강조 구문으로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 구문 분석(2001, 유현근)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고해 보면 평균 10% 정도의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구어체 구문 분석 결과 It ... that/wh 강조 구문의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원어민들이 회화체에서는 즐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t ... that/wh 강조구문은 문어체에서 자기 의견/주장을 강조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잘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다.

실용영어어법(1997, 최인철)에서는 It ...that/wh 강조 구문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The terrorist murdered the politician around the corner last night.

→It was the terrorist that/who murdered the politician around the corner last night. (주어 강조)

→It was the politician that/who(m) the terrorist murdered the politician around that corner last night. (목적어 강조)

→It was around that corner that/where the terrorist murdered the politician last night. (장소 부사 강조)

→It was last night that/when the terrorist murdered the politician

around that corner. (시간 부사 강조)

2.12.3 생략(Ellipsis)

분석 결과 생략은 담화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30.26%의 사용 비율의 높은 사용 비율을 보여 자연스러운 영어 구문 학습에 있어서 중요시 될 사항으로 여겨진다.

생략은 기본적으로 언어사용의 경제성과 정보 전달의 명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격식을 차리지 않는 친근감을 더해 주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Hymes,1972). 김금령(1990)은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끌기 위해 예측 가능한 생략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잉여성을 피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덜 수 있는 효율성을 위해 생략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Greenbaum과 Quirk(1995)는 엄격한 생략 현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ellipsis requires VERBATIM RECOVERABILITY : that is, the actual word or words that are implied must be precisely recoverable.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어체 구문에서 생략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41] 생략 (사용갯수/%)

S	370/896	41.29
S + be verb(일반 Verb포함)	79/896	8.80
be verb	34/896	3.79
조동사	5/896	0.22
관계대명사 + be	9/896	1.03
관계대명사	28/896	3.12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	329/896	36.71
대부정사/전치사/부사/술부	42/896	4.35

생략(Ellipsis)은 전체 corpus의 30.26%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 주어, 주어+be 동사, 그리고 Be verb의 생략(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 비절구조 제외)의 사용 비율이 높아 구어체 구문의 중요 생략 현상으로 여겨진다. 구어체 구문의 생략(Ellipsis)현상은 기존 교육현장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corpus에서 활발한 사용을 보인 ‘Be verb 생략’의 실례이다.

- a) You OK, sweetie? (F)
- b) Sure! You hungry? (M)
- c) Everybody comfortable? (F)
- d) What you driving, a Ford? (M)
- e) So why you all dressed up? (F)
- f) Tom Collins coming up. (F)

접속사 ‘and’ 생략이 전체 생략 중 2.34%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어 그 사용 비율은 낮은 편이나, 본 연구자가 판단해 볼 때 접속사 ‘and’의 생략은 국내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문이라 생각되어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제시f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구어체 구문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전치사 ‘and’의 생략 현상의 대부분이 시트콤 ‘Friends’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현대 영어에 더욱 가까운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Go take a shower, get dressed and come down. (F)
- b) OK, go wake up Denny and borrow some of his. (M)
- c) So you wanna go have lunch? (F)
- d) I’m gonna go freshen up, ok? (F)
- e) Why don’t you go see Dr. Gettleman? (F)
- f) I’m gonna go check her diaper. (F)
- g) I have to go scream into a pillow. (F)

접속사 and의 생략 구문은 ‘go (and) V : (가서 ...하다)’ 형태(pattern)가 반복 사용되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이 구문을 관용표현으로 가르치면 접속사 and 생략 구문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에 사용된 동사(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to만 남아 그것이 「to+동사원형」을 대신하는 ‘대부정사’의 생략 또한 빈번하여 자연스러운 구어체 구문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 a) Look, I didn't want to rush into anything
And it seemed like she didn't want to(rush into anything), either. (F)
- b) How could you not tell me this?
I wanted to(tell you that), honey. (F)
- c) But why couldn't you tell me, huh?
You had all day to(tell me) and you didn't. (F)
- d) I..I'm not gonna smoke again.
Do you want to(smoke again)? (F)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구어체 구문 습득에 유용할 만한 생략(Ellipsis) 구문 특징만을 설명해보았다. 이외에도 구어체 구문에서 생략(Ellipsis) 현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는 생략 현상을 구어체 구문의 중요 현상으로 다루어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2.13 연결사(Cohesive Markers)

연결사는 두 문장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의미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실용영어어법(최인철, 1997)에서는 다음의 7항목으로 연결사를 분류하고 있다.

: 열거, 첨가/부가, 양보/대조, 변환(전환/시기/때), 요약/결론, 견해/논리

Corpus 분석은 실용 영어 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의 7항목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으나 분석 결과 그 쓰임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나타나 그 쓰임이 두드러진 연결사만 설명하고자 한다.

[표-42] 연결사 (사용 갯수/%)

but	87/334	26.04
and	58/334	17.36
actually	17/334	5.08
in fact	4/334	1.19
so	96/334	28.74
then	24/334	7.18
maybe	23/334	6.88
perhaps	2/334	0.59
now	12/334	3.59
sometimes	5/334	1.49
other cohesive markers	6/334	1.79

분석 결과 연결사 and, but, so가 지배적 사용 비율을 보였다.

여러 문장을 끊임없이 말 할 수 있는(keep talking) 구어체의 성격상 and, but, so 연결사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이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결사 and의 실례 중 ‘and then’ 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경우가 연결사 ‘and’ 쓰임의 22.41%의 높은 사용 비율을 보여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a) And then we may never get home. (P)
- b) And then you took your breast out! (F)
- c) And then they wouldn't bother anybody? (F)
- e) And then I gotta go to the office. (F)
- d) And then I'll meet you there. (P)
- f) And then swing her rapidly from side to side. (F)

다음은 연결사 but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But you didn't pick it. (M)
- b) But you said you forgave me. (F)
- c) But cats make you work for their affection. (M)
- d) But you promised to love him no matter what. (M)
- e) But frankly, Sir, I'm terrified of being your son-in-law. (M)

연결사 now의 실례이다.

- a) Now he's gonna know it was me! (M)
- b) Now don't you wish you could tell her that? (F)
- c) Now can anyone tell me the difference between Elm Street and Main Street? (P)

표에 제시된 연결사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연결사가 사용되고 있었다.

: also, meanwhile, anyway, anyhow, as a matter of fact, at least, besides, by the way, otherwise, plus, recently, somehow, though

연결사 사용은 문장간의 부드러운 연결을 도와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구문이다. 이러한 연결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 표현하는데 응용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4 비교구문(Comparisons)

[표-43] 비교구문 (사용갯수/%)

원급	3/91	3.29
비교급	65/91	71.42
비교 대상의 생략	38/65	58.46
better	18/65	27.69
worse	3/65	4.61
최상급	23/91	25.27
best	3/23	13.04
worst	2/23	8.69

2.14.1 비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 구문은 전체 corpus의 총 2.04%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비교급 구문은 better/worse가 32.30%의 사용 비율을 보여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더 낫다, 더 나쁘다」라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 대상 생략이 58.46%를 차지면서 문장 길이도 문어체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어체 구문이 대화 문맥(context)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에서는 비교급 구문을 사용하여 서로 상관된 대상을 비교하거나 그 관계를 밝힘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더욱 단단히 뒷받침 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비교 대상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 가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비교구문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비교급 better 사용

You'll feel better! (M)

That would've been better. (P)

Nursing was just better for me. (M)

Wow, I liked that better than the law thing, so... (M)

I just think there's somebody better out there for you. (F)

b) 비교급 worse 사용

If it gets much worse, you could DIE! (F)

No, it's worse than that. (P)

c) more of a ~ 사용

I just happen to be more of a dog lover. (M)

Thanks, Ross, but I'm really more of a candy guy. (F)

Actually, Pheeb, it's more of a husband and wife kinda thing. (F)

기존 영문법 책에 어김없이 제시되고 있는 비교 구문의 관용적인 표현은 대개가 수사적 표현이 많은데 분석 결과 원어민들의 일상 생활의 회화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죽어 있는 구문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문법서를 맹신하여 무의미한 암기에 시간, 에너지 낭비하기보다는 TV, 신문, 잡지, 원서 등의 원어민의 현대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매체를 활용한 언어 학습이 필요하겠다.

2.14.2 최상급

원어민들이 회화체에서 사용하는 최상급 구문을 분석 해 보았을 때 우리와는 다소 다른 언어 습관, 정서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다소 절제하여 표현하는데 익숙하지만 원어민들은 최상급 구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내보이며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주변에 영어 습득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며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최상급 구문만 가르치기보다는 최상급 구문을 쓰는 원어민의 언어 습성을 같이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Corpus에 제시된 최상급 구문의 실례를 살펴보자.

a) We have the best time together. (M)

- b) These last 10 months...have been the happiest of my life. (M)
- c) You're the most adorable, loving, sweetest man in the world. (F)
- d) I'm the worst mother ever! (F)
- e) Oh, would you say this was the most upset you could be? (F)
- f) But it's like...he didn't show the slightest bit of interest. (F)

2.15 기타 구문 특징

(1) 다양한 연어(Collocations) & 숙어(Idiomatic Expressions) 사용

Corpus 전체에 걸쳐 연어(Collocation)과 숙어(Idiomatic Expressions) 사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용적 표현으로 기억해 두어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음은 corpus에 제시된 실례이다.

a) Collocation

make a toast ... to Phoebe. (F)

Can I make a special request? (M)

I made a decision. (M)

So time has come to make decision? (F)

Don't take a chance. (M)

Why did you take the test? (M)

So even though I can't make any promises, I figured if you asked me real nice, I might just be willing to talk about it again.
(F)

b) Idiomatic Expressions

You name it. (M)

Be my guest, Focker.(M)

Um...Bob, why doesn't Greg stand in for Andy, be the usher? (M)

If you just have the guts to look for them, that's enough.

Kids are making out in the street. (P)

Finally, you guys made it. (F)

Kick up the heels, and paint the town red. (F)

Really, the world is your oyster. (F)

Please, just pull yourself together, okay?

(2) look/listen/kinda(kinda)/sort of/like/come on

- a) look, listen : 발화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의를 먼저 끌고 자신의 말을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발한 쓰임을 보이고 있었다.

Okay, look, just do it gently. (P)

Oh, look, honey. Greg brought us a present! (M)

Alright, look, I'm not gonna do this. (P)

Look, I don't usually ask out women that I meet
in coffeehouses. (F)

Listen, I hope this lunch isn't too weird for you. (F)

Listen, I, uh,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F)

Okay, so, listen, I'm gonna go lay down. (M)

- b) kind of(kinda)/sort of(sorta) : ‘뭐, 좀, 그러니까...’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sorty of 보다 kind of가 더 활발한 사용을 보였다.

Seemed kind of sexy. (F)

Kind of having tough time. (M)

Actually, Pheeb, it's more of a husband and wife kinda thing. (F)

Okay, Ms. McKenna, she kind of works above my boss. (F)

So I'm feeling kinda gross. (P)

Well, yeah, sort of... (M)

It just sort of happened. (P)

c) like : ‘...처럼, ...와 같다’ 의 의미의 접속사로 어떤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And he was like, well, maybe we could. (P)

I was, like, My mom’s gonna go out of town. (P)

You know, I was like, if I fall asleep now,

I’ll get six hours sleep. (F)

d) come on : 재촉할 때, 진정시키거나 격려하고 달랠 때, 그만하도록 요청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Let’s go. Come on! (M)

Come on little girl, hi! (F)

Come on, men, let’s go! (P)

Come on in. (F)

(3) 다양한 부사(adverbs)의 사용

부사(adverbs)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앞뒤의 내용을 연결, 문장 전체 내용을 수식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로서 분석 결과 다양한 부사 사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부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발화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부사 활용을 할 수 있는 구문 학습이 필요하겠다.

다음은 전체 corpus 중 223회 사용되어 5.01%의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인 just의 실례이다. 이는 ‘그냥, 이제 막’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a) Just go! (M)

b) You wanna just order? (F)

c) Maybe it’s not just the sex! (P)

d) Alright, we’ll just, uh, see when you get here. Bye. (F)

e) It’s just that we do have some large parties waiting. (F)

f) Oh, please! Just before when you were asleep in the lounge! (F)

g) But Rachel I thought she just had a baby with Ross. (F)

(4) 축약 발음 사용

구어체는 비격식체 구문으로 간편한 구문을 선호한다. 이러한 노력이 발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국내 학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구어체 구문에서 자주 나타났던 발음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 a) be going to → **gonna**
- b) want to → **wanna**
- c) kind of → **kinda**
- d) have got to → **gotta**

[표44] 축약 발음

(사용갯수/%)

be going to	12/110	10.9	be gonna	98/110	89.09
want to	13/36	36.11	wanna	23/36	63.88
have got to	5/20	25	gotta	15/20	75
kind of	17/25	68	kinda	8/25	32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자.

- a) Your dad's gonna love this gift. (M)
- b) This is gonna kill him! (P)
- c) Besides, y...you know, everything is gonna be fine. (F)
- d) And we gotta do this all over again. (F)
- e) You gotta be careful if you call here. (M)
- f) You wanna hear a story? (M)
- g) Do you wanna be Maverick? (P)
- h) Wanna peek? (F)
- i) I kinda took it the hardest cause I was the youngest. (F)
- j) So I'm feeling kinda gross. (F)

Ⅲ. Non-clausal units의 기능과 역할

3.1 각 Inserts의 기능에 따른 분석

3.1.1 Vocatives

호격은 대화 참여자들 간에 관계를 설정해주며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원어민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처음 보는 사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칭을 써야하는 경우까지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다.

[표-45] Vocatives (사용갯수/%)

Endearments	54/381	14.17
Family terms	43/381	11.28
Familiarizers	29/381	7.61
Familiarized first names	63/381	16.53
First names in full	157/381	41.20
Title and surname	8/381	2.09
Honorifics	14/381	3.67
Others	19/381	4.98

위 분석 결과를 보면 First names가 57.73%의 사용비율을 보여 일상 대화에서 원어민들은 First names(성을 뺀 이름)를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이거나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에 사용하는 Endearments, Family terms, Familiarizer는 3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로 친분 관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어 잘 모르거나 존칭을 써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Honorifics와 Title and surname은 5.76%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vocatives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 First names in full

성을 제외한 이름을 부르는 경우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은 공통 사항이 없어 표로 제시하지 않겠다.

문두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고, 문중, 문미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Rachel, I can see you dialing! (F)

David, stop stressing! (P)

Chandler, I don't even wanna see the musical Oklahoma! (F)

I'm sorry, Pam, but your dad is not retired. (M)

b) Familiarized first names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잘 알고 지내는 친밀한 사이에 서로를 부르는 경우로 first names를 짧게 줄여 부르거나 또는 애칭 접미사 -y/-ie 를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름은 공통 사항이 없어 표로 제시하지 않겠다.

시트콤 'Friends'의 세 여주인공 Rachel, Monica, Phoebe는 서로를 Rach, Mon, Pheebs와 같이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표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표-46] Familiarized first names (사용갯수/%)

Rachel	2/16	12.50	Rach	14/16	87.50
Phoebe	5/11	45.45	Pheebs	6/11	54.54
Monica	4/6	66.66	Mon	2/6	33.33
Jinx	5/11	45.45	Jinxy	6/11	54.54
Joe	2/15	13.33	Joey	13/15	86.66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Yeah, uh, look, Rach, there's something I gotta tell ya. (Rachel) (F)

We have no choice, Jen. (Jennifer) (P)

Um, Mon, Chandler's not here. (Monica) (F)

Oh, uh, hey, Pheebs, Uh, y'know what? (Phoebe) (F)

Hey, Jackie. (Jack) (M)

Jinxy! Come here. (Jinx) (M)

That's right, Tommy. (Tom) (M)

c) Endearments

연인, 부부 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다음과 같은 명칭이 있다.

: baby, darling, pumpkin, sweetie, sweetheart, honey, dear

[표-47] Endearments (사용갯수/%)

honey	36/54	66.66
sweetie	10/54	18.51
darling	3/54	5.55
baby	2/54	3.70
pumpkin	2/54	3.70
sweetheart	1/54	1.85

분석 결과 'honey'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umpkin은 주로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사용되고 있었다.

Corpus에 나타난 실례를 살펴 보자.

Oh, look, honey, Greg brought us a present! (M)

Honey, the question is...do you really want to marry Joey. (F)

Come here, baby! (M)

Oh, darling, that's wonderful! (P)

I'm so happy you're home, sweetheart. (F)

He doesn't hate you, sweetie. (M)

Sweetie, let me be a part of this. (F)

Oh, pumpkin, you sure know the way to this man's heart. (P)

d) Family terms

가족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다음과 같은 명칭이 있다.

: mummy, mum, mommy, mom, ma, daddy, dad, pop, granddad, grandpa, granny

[표-48] Family terms (사용갯수/%)

dad	22/43	51.16
daddy	6/43	13.95
father	2/43	4.65
mom	6/43	13.95
mommy	6/43	13.95
mother	1/43	2.32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Dad, that's kinda weird. (M)

The truth is, Dad, we're-we're trying. (F)

Daddy! I don't think we need to hear about the specific positions you and mom had sex. (F)

Well, you know, Mom, there are other ways to enjoy yourself without Dad. (P)

Mommy, what's wrong with that man? (P)

e) Familiarizers

친근한 사이에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다음과 같은 명칭이 있다.

: guys, man, buddy, folks, bro, dude

[표-49] Familiarizers (사용갯수/%)

dude	6/29	20.68
buddy	2/29	6.89
folks	2/29	6.89
guys	3/29	10.34
you guys	11/29	37.93
man/men	5/29	17.24

분석 결과 dude와 buddy는 100% 남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의 실례를 통해 그 쓰임을 숙지해 두도록 하자.

Pam' brother : Hey, he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M)

Greg : I'm...I'm Greg, Pam's friend.

Pam' brother : Were you sniffing my boxers, dude?

Greg: No! Dude, no. She said I could come up and borrow some clothes from you.

Ross: Hey, I'm not going to rush into anything! (F)

Joey: Oh, yeah, dude, I totally understand.

Chandler: But I don't think I'm gonna be able to make it. (F)

I'm sorry, buddy.

Ross: You can't go!

한편 folks, guys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문법서에는 guys가 어떤 한 무리의 남자를 부르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corpus를 분석해 본 결과 성별 구분 없이 두 명 이상의 무리를 부를 때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guys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못지 않게 you guys가 함께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Hey, you guys, I' m gonna take off. (F)

Oh, you guys, I love it. (F)

Oh, god, what am I gonna do, you guys? (F)

이와 같은 Familiarizers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호칭이므로 원어민과 대화 시 주의하여 사용 할 필요가 있겠다.

f) Title and Surname

상대방을 'Mr, Mrs, Ms + 이름의 성' 이나 직업명으로 부르는 경우에 해당되는 호칭으로 서로를 존칭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50] Title and Surname (사용갯수/%)

Mr.	4/8	44.44
Ms.	1/8	11.11
doctor	1/8	11.11
nurse	1/8	11.11
chief	1/8	11.11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자.

Hello, Mr. Johnson. (P)

Hey, Mr. Simpson, your lawn looks great. (P)

Okay, Ms. McKenna, she kind of works above my boss. (F)

Thanks, doctor. (F)

Here you go, chief. (F)

g) Honorifics

Sir, madam, ma'am, miss와 같은 존칭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또한 상대를 존칭해 주는 역할을 하여 일상 대화가 주를 이루는 구어체 구문에서는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1] Honorifics (사용갯수/%)

Sir	11/14	78.57
ma'am	1/14	7.14
miss	2/14	14.28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Good evening, Miss. (M)

I didn't lose your anything, Sir. (M)

The doctor will be right with you, Sir. (F)

Umm, Ma'am, do you have a minute? (F)

h) Others

상대방을 별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로 부르는 등의 경우에 사용되는 호칭으로 정식 명칭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

Corpus에서는 다음과 같은 호칭이 제시되고 있었다.

I don't know what got into me, Iceman. (F)

Well, you gotta get at it, princess! (F)

So, Okay, Super aunt! See you later! (F)

Nonsense, young lady. (P)

Well, come here, young fella. (P)

Last week, class, we discussed the geography of Main Street.(P)

Obviously, my friends, it's competitive world and good grades are your only ticket through. (P)

구어체 corpus 분석 결과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다양한 vocatives가 사용되고 있었다. 국내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의사소통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운 대화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잘 지도될 필요가 있겠다.

3.1.2 Interjection

Interjection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표-52] Interjection (사용갯수/%)

oh	218/282	77.30
wow	32/282	11.34
ah	16/282	5.67
ooh	7/282	2.48
oops	-	-
argh(agh, aw, aww, uch, uh)	9/282	3.19

분석 결과 oh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아 원어민들이 감정 표현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Oh는 다른 inserts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 oh yeah, oh yes, oh no, oh well, oh God, oh I see, oh gosh,

oh shoot 등.

Oh 다음으로 wow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h보다 좀더 강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ooh, ah는 유쾌한 상황, 그렇지 못한 상황 모두에 쓰이는 interjection으로 나타났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Oh, there he is! (F)

Oh...dear God... (M)

Oh, look, honey. Greg brought us a present! (M)

Oh, hey, you guys, I couldn't get a reservation for the night of my birthday. (F)

Wow, that was very thoughtful of him. (M)

Wow, you guys go way back then. (F)

Wow, so your child is a big fan of the Waldo books, too? (F)

Hey...hey! Oh, wow, somebody smoked out here? (F)

Oh, wow, this feels weird. (F)

3.1.3 Greetings and Farewells

인사는 다음과 같이 대칭 구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ndler: Hi, honey! I'm home. (F)

Monica: Hi, how was your flight?

[표-53] Greetings and Farewells (사용갯수/%)

hello	17/75	22.66	hi	28/75	37.33
good-morning	1/75	1.33	morning	4/75	5.33
good-evening	3/75	4.00	evening	1/75	1.33
good-night	2/75	2.66	night	2/75	2.66
bye-bye	1/75	1.33	bye	16/75	21.33

분석 결과 원어민들은 인사말을 함으로써 그 뒤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가장 큰 사용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원어민들은 짧은 인사말을 선호하고 있었다. 위 분석 결과를 보면 hello 보다 hi를 ‘Good’ 형태는 good을 생략한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고, good-bye는 ‘good’의 쓰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good형태의 인사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더 자연스러운 구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3.1.4 Discourse Markers

Discourse markers는 대개 다음 발화 첫 시작에 사용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ve) 관계를 보여주게 된다. 구어체 구문의 대표적 특징으로 살아 있는 구문 습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과 같은 Discourse Markers가 있다.

: well, I mean, you know, you know what, you see, see

[표-54] Discourse Markers (사용갯수/%)

well	124/239	51.88
I mean	31/239	12.97
you know	56/239	23.43
문두	41/56	73.21
문미	10/56	17.85
문중	5/56	9.82
you know what	19/239	7.94
you see / see	9/239	3.76

Well은 ‘음... 뭐.. 그러니까..’ 의미로 잠깐 생각을 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responsive role)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생각 할 시간을 벌기 위한 ‘고의적’ 의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yeah’, okay, alright, oh, you know와 같은 다른 inserts 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well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 Hey,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F)

B : Well, now's a good time.

A : Ok, I just got the Chandler's room and I caught him molesting himself. (F)

B : Oh, that couldn't have been pretty... but, you know, guys do that.

A : Yeah, well, the weird part is... he was getting off to a shark attack show!

A : Didn't they just meet a few months ago? (M)

B : Yeah, but he asked her and she said yes.

A : Well, he asked my dad first.

A : Trust me, your dad's gonna love this gift. (M)

B : Well, don't forget he's retired.

A : Oh, no, Rach, no no, you know you're never supposed to wake a sleeping baby. (F)

B : Well, I can do whatever I want! I made her!

You know는 '왜,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you know는 문두에서 가장 활발한 사용을 보였고, 문미, 문장중간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다.

A : Who would've thought it wasn't really about a dragon, huh? (M)

B : What do you mean?

A : You know, the whole drug thing.

A : I can't get enough of her. (F)

Like right now I miss her. I actually miss her.

B : You know, that's ... that's her.

A : Why're you so tired? (F)

B : Couldn't sleep last night, you know.

A : You are unbelievable! (F)

B : I spent so much time finding the perfect girl for you, you know.

A : I just...I just feel like, you know, we're so close. (F)

B : They'd love to hear about your rendezvous in the parking lot, you know, where the guy gave you the passports and documents.

3.1.5 Attention Signals

Attention Signals 'hey' 는 대화 도중 특정 상대방을 불러 관심을 끌고자 사용하는 inserts이다. 분석 결과 hey 뒤에 상대방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24.03%의 사용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구어체 의사소통이 문맥(context)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hey 뒤에 이름을 명시한 경우는 특정한 상대의 관심을 끌고자 함이다.

다음의 실례를 통해 그 쓰임을 잘 숙지해 두도록 하자.

a) hey 뒤에 상대의 이름 명시하는 경우

Hey, you OK? (F)

Hey, hey! Dad! Calm down! (M)

Hey, Momma, you look great! (F)

Hey, you guys, I'm gonna take off. (F)

Hey, Mike, sorry to just drop by like this. (F)

Hey, Larry, why don't I drive? (M)

Hey, Chandler,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F)

b) hey 뒤에 상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Hey,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F)

Hey, I'll lend you a pair of Jack's. (M)

Hey, he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F)

3.1.6 Response Ellicitors

Response Ellicitors는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이해, 동의, 확인 등의 반응을 얻어내고자 함이 주목적인 inserts이다.

다음과 같은 response ellicitors가 있다.

: huh?, all right?, okay?, right?

위에 제시된 response ellicitors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 사용 가능하여,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서는 무례한 것으로 여겨져 잘 사용되지 않게 된다.

[표-55] Response Ellicitors (사용갯수/%)

all right	5/47	10.63
huh	19/47	40.42
okay	19/47	40.42
right	4/47	8.51

분석 결과 huh와 okay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huh

There is nothing like the support of your loving wife, huh? (F)

And Greg, meanwhile, anything you need, just ask, huh? (M)

So, uh... I guess we should...make it official, huh? (F)

Is that one of your secret cameras, too, huh? (M)

Maybe he's nervous, too, huh? (M)

b) okay

Rach, you don't have to call whenever you have a little question, okay? (F)

I never really wanted to marry Joey, okay? (F)

Alright, you guys, we can't turn on each other, okay? (P)

You have got to get over this Joey thing, okay? (F)

c) all right

Just give him a chance, all right? (F)

I'm gonna get you out of here, all right? (P)

d) right

Now, these aren't 100% accurate, right? (M)

I mean, you're gonna get together, right? (P)

And we both know there's only one way to make Mr. Winkie
go away, right? (F)

3.1.7 Response Forms

Response forms는 대화 중 다른 화자가 행한 말화에 대해 형식화된 짧막한 형태로 응답을 하는 inserts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질문에 대한 답(response to questions) : yeah, yeah, yep, no, nope, uh-huh, okay
- 명령문에 대한 답(responses to directives) : okay, yeah, no, sure
- backchannels(responses to assertions) : uh huh, mhm

(1) Response to Questions

[표-56] Response to Questions

(사용갯수/%)

긍정	yeah	138/181	75.40
	yes	37/181	20.21
	yep	4/181	2.18
	uh-huh	5/181	2.73
부정	no	129/147	87.75
	nope	3/147	2.04
	nah	1/147	0.68
	no way	8/147	5.44
	not at all	1/147	0.68
	uh-uh	5/147	3.4
강한 응답	sure	21/36	58.33
	of course	13/36	36.11
	of course not	2/36	5.55

긍정을 나타내는 응답 중 yeah가 지배적 사용 비율을 보여 구어체 구문의 긍정 응답 표현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문법책에서는 yeah라는 응답 표현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심지어 틀린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rpus에 제시된 다음의 실례를 살펴보자.

Monica: But you don't remember sleeping with her. (F)

Joey: Yeah, but she should remember sleeping with me.

A : Isn't that great? (M)

B : Yeah, that's... Didn't they just meet a few months ago?

긍정 응답 형태 중 uh-huh 또한 그 쓰임이 빈번하여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A : Hey, so are you sure you're ready to go? (M)

B : Uh-huh, how do I look?

Rachel: Yeah. Just to be sure, I'm gonna call Dr. Wiener. (F)

Rachel: Every time?

Joey: Uh-huh.

일반적인 응답 표현 외에 강한 응답 표현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응답 표현은 ‘물론, 당연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 공손한 뉘앙스를 띄기도 한다.

Joey: Hey, uh, is it okay to come in? (F)

Rachel: Of course! Oh Joey, this ring I...

Rachel: Alright, thanks, Oh! Ross! could you stop by the coffee house and get me a muffin? (F)

Ross: Sure.

긍정·부정 응답 표현을 두·세번 반복 사용하여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는 다음과 같다.

: no, not at all/ no, of course not/yes, of course/ ok, yeah/ sure, yeah/ uh-huh, sure, yeah/ yeah, ok, sure

(2) Responses to Directives

[표-57] Responses to Directives (사용갯수/%)

Okay(OK)	91/126	72.22
okey dokey	1/126	0.79
alright	34/126	26.98

Okay는 명령문에 대한 응답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 기능이지만 제안(suggestions), 충고(advice), 허락을 구하는 상황(permission-giving) 등 일반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3) Responses to Assertions(backchannels)

[표-58] Responses to Assertions (사용갯수/%)

		(사용갯수/%)
mhm/mm/mhmm/uh-huh	17/77	22.07
really	18/77	23.37
what	42/77	54.54

Backchannels는 상대의 진술(statements)에 대한 응답으로 상대방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음을 피드백(feedback) 해주는 역할을 한다. 타인에게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을 경우 mm, uh huh, mhm과 같은 긍정의 반응을 해주고,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한 경우 huh?, what?으로, 그리고 이 두 상황 모두에 적용되면서 그것에 대해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일 때는 really를 사용하고 있었다. Backchannels는 의사소통이 상호작용(interactive)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볼 때 화자(speaker)와 청자(hearer)간의 대화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Corpus에 제시된 다음의 실례를 살펴보자.

Monica: That's right, because I forbid you to smoke again. (F)

Chandler: You forbid me?

Monica: Mhmm.

Greg : He doesn't need a machine. He's a human lie detector. (M)

Pam : What?

David : How'd you know about the fire? (P)

Jennifer : What?

David : How'd you know how to put it out?

Ross: You can't go, I mean you're the glue that holds this group together! (F)

Chandler: Really?

Joey: Yeah, so you found someone for me. You didn't forget?

3.1.8 Various Polite Speech-act Formulae

Polite speech-act formulae는 감사하기(thanking), 사과하기(apologizing), 요구/요청하기(requesting), 축하하기(congratulating)등의 화행을 나타내는 inserts이다. 다음 표를 통해 사용 비율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표-59] Various polite speech-act formulae (사용갯수/%)

thanking	thank you	27/146	18.49
	thanks (no thanks)	32/146	21.91
	you're welcome	3/146	2.05
	no problem/of course/sure	-	-
apologizing	I'm sorry	32/146	21.91
	sorry	8/146	5.47
	excuse me	10/146	6.84
	That's okay	-	-
requesting	please	27/146	18.49
congratulating	congratulations	4/146	2.73
	happy birthday	3/146	2.05
sending good wishes	good luck	-	-

Apology forms 중 분석 자료으로 선정된 corpus에서는 그 사용 비율이 낮았으나 sorry?, excuse me?, pardon?, I beg your pardon?, pardon me?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경우 이외에도 화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 한번 더 반복을 요구할 시에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Corpus에 제시된 excuse me의 실례를 살펴보자.

Chandler: We're moving to Tulsa! (F)

Monica: Excuse me?

Chandler: Okay, Ms. McKenna, she kind of works above my boss.

She asked me to move to Tulsa and be the president of our office there.

Joey: hot hot hot hot! (F)

Hayley: excuse me?

Joey: I said I think you're hot.

상대의 말에 대해 반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할 때도 사용되었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 보자.

Mike: Excuse me, hi! I was hoping I would run into you. (F)

Can we talk?

Phoebe: Sure.

Mike: Excuse me. Hi. You lost my bag and there's a diamond ring inside it. (M)

clerk : I didn't lose your anything, sir.

Please는 문두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고, 문장 중간, 문미, 그리고 exclamatory function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60] Please의 사용 위치 (사용갯수/%)

문두	문중	문미	exclamatory functions
15/27	4/27	3/27	5/27
55.55	14.81	11.11	18.51

Corpus에 제시된 다음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문두에서 사용되는 경우

Please, just pull yourself together, okay? (F)

Please, don't blow her off. (F)

Please, take your time. (P)

b) 문장 중간에서 사용되는 경우

Oh, thank god, if Phoebe's going, can we please take Emma home? (F)

Could you please get her attention? (F)

So, can we please drop this? (F)

c) 문미에서 사용되는 경우

OK, sign here, please. (M)

Not at the table, honey, please. (M)

d) Exclamatory functions

Ken, please! I can't smoke. (M)

Oh, please! Just before when you were asleep in the lounge! (F)

3.1.9 Expletives

Expletives는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된다.

(1) Taboo expletives

: 종교, 성, 배설물 등의 직접 언급하는 것이 금기 시 되는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다. 'God' 를 활용한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61] Taboo expletives (사용갯수/%)

God / my God / thank God	45/58	77.58
damn/God damn	8/58	13.79
Jesus / Jesus Christ	3/58	5.17
hell	1/58	1.72
fuck	1/58	1.72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보자.

Oh, God, look at her sleeping. (F)

Oh, God! This is humiliating! (F)

OH, MY GOD! When you came in I switched the channel. (F)

Oh, my god, this really hurts!!! (F)

Oh, Jesus, Jack, you scared me. (M)

(2) Moderated Expletives

: 금기 시 되는 표현을 발음을 약간 달리 하거나 또는 비슷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표-62] Moderated Expletives (사용갯수/%)

gosh / my gosh	11/28	39.28
gee / Jeez / gee whiz	10/28	35.71
my goodness / thank goodness	3/28	10.71
shoot	1/28	3.57
holy cow / holy shit / holy moly	3/28	10.71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자.

Gosh, I love that show. (F)

Gosh, she's great. (P)

My gosh! I didn't know you had a cat. (M)

My goodness! What is that? (P)

Oh, holy moly, are we in a pickle now? (P)

Holy shit! That's Jinx! (M)

Expletives를 taboo insults와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taboo insults는 특정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고, expletives는 대화 도중 일어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표현으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Expletives가 상스러운 욕설(swearwords)이 아님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다음 아래의 taboo insults(욕설)의 실례를 살펴보면 You와 함께 사용되어 특정 상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ou bastard! (taboo insults)

You son of a bitch! (taboo insults)

3.2 Syntactic non-clausal units의 분석

Syntactic non-clausal units(통사적 비절 구조)는 아래 ((1)~(3))의 문장 구조나 문법적 범주에 의한 설명(syntactic descrip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inserts와는 범주를 달리하게 된다. Syntactic non-clausal units(통사적 비절 구조)는 넓은 의미에서는 특수 구문(structural variations)의 생략(Ellipsis) 범주에 속하기도 하지만, 1.12의 특수 구문에 설명된 생략은 syntactic clausal units(독립된 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여 이와는 차이가 있다.

(1) Standard phrases clauses

- Noun phrases(명사구) : poor kids, no sweat
- Adjective phrases(형용사구) : perfect, good for you
- Adverb phrases(부사구) : not really, absolutely
- Prepositional phrases(전치사구) : for goodness' sake!

(2) Phrases augmented by inserts or other syntactically peripheral elements

- Oh, shame!
- Ah. you can't!
- This way, please.
- Good play there, dude.

(3) Unembedded dependent clauses

- not to worry

이러한 생략(Ellipsis)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formality(Joos, 1965)에서 찾아보면 구문의 생략 정도는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격식에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다음 문장을 통해 격식에 따른 생략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 Frozen(몸을 움직이지 않는 강연이나 설교처럼 매우 격식을 차리는 상황)
ex) Visitors should make their way at once to the upper floor by way of the staircase.
- Formal(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지만 강의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는 상황)
ex) Visitors should go up the stairs at once.
- Consultative(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간의 관계에서처럼 일대일의 공적/사무적인 상황)
ex) Would you mind going upstairs right away, please?
- Casual(잘 아는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처럼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
ex) (It's) Time you all went upstairs now.
- Intimate(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격식 없이 대화하는 상황)
ex) Up you go, chaps!

위의 격식 정도에 따른 생략 형태 변화를 참고해보면 문어체와 구어체 구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구어체 의사소통은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몇몇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Casual, Intimate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Frozen, Formal, Consultative 상황의 구문과 Casual, Intimate 상황의 구문 차이를 실례를 통해 살펴보면 ‘생략의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의사 소통(face-to-face communication)은 비격식(informal)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주어, 동사 생략 혹은 몇몇 필요한 단어만 사용한 비격식체의 의사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유현근, 2001)의 논술체 문어체를 참고 해 보면 구어체 구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 절 구조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구어체 구문 분석 결과 비 절 구조가 19.40%의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화가 상황, 문맥(context)에 크게 의존하여 상대가 이미 언급한 말을 반복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부터 비절 구조의 기능적 범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생략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 절 구조의 생략현상은 구어체 구문의 주요 특징으로 자연스러운 의사 소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3.2.1 Elliptic Replies

상대방이 이미 언급한 사실에 대해 불필요한 반복을 회피하고 응답하는 경우의 생략에 해당된다. 응답 시 생략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발화로부터 의미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Elliptic Replies는 분석 결과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1. A: Where did you guys park?

B: Right over here.

→ B 응답의 경우 we parked right over here.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2. A: Did you have a good weekend?

B: Yeah. Yourself?

→ B 응답의 경우 Did you have a good weekend, too? 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corpus에서 제시된 Elliptic Replies의 실례이다.

A : What's his name? (M)

B : Mike.

A : How many sisters does Joey have? (F)

B : Six!

A : How do you pronounce it? (M)

B : Oh. Just like it's spelled.

A : Joey, why did you set me up with a stranger? (F)

B : Because I forgot about our date.

A : Debbie's marrying that guy? (M)

B : Yeah. In two weeks.

A : You're telling me the Jews don't pray, honey? (F)

B : Unless you have some objection.

위에 제시된 (B) 실례의 생략된 부분은 앞서 언급된 발화(A)로부터 의미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3.2.2 Condensed Questions

3.2.1에 언급된 Elliptic Replies는 anaphoric ellipsis(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생략)이고 Condensed Questions는 situational ellipsis(상황적 생략)을 의미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해두자.

- a) More sauce?
- b) Any luck?
- c) How about your wife?
- d) Now what about a concert this Friday?

위에 제시된 (a~b)는 상황적 추측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Would you like more sauce?' , 'Did you have any luck?' 문장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a) How come? (M)
- b) What about Ben? (M)

c) What about this one? (P)

d) Hey, how about you set me up with someone? (F)

실례 (a~b)의 What about~?, How about~?은 관용적 표현으로 익혀두어 적절한 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3.2.3 Echo Questions

상대방의 발화를 확인해 보거나(confirmation), 한번 더 물어 봄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할(clarification) 목적으로 생략하는 경우이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고도록 하자.

A : I don't see nothing in San Francisco.

B : Oh, did you say San Francisco?

A : The weather was crappy.

B : Oh, yeah?

A : Yeah, we ended up coming home Saturday.

B : Are you serious?

A : Yes.

B : Saturday?

Corpus에 제시된 실례는 다음과 같다.

A : They said it could be up to a year. (F)

B : A year?!

A : What have you ever milked? (M)

B : Cat.

A : A cat?

3.2.4 Condensed Directives

Condensed Directives는 다소 명령적 어조를 갖으면서 나타나는 생략의 형태이다. Corpus에서는 ‘No ~ing!’의 구문 형태가 반복 사용되고 있었다.

No peeking. (몰래 보는 거 안되!) (M)

Yeah, no kidding. (말도 안되!) (F)

And no kissing. (키스는 안되!) (F)

Huh, and no cuddling. (껴안는 거 안되!) (F)

I'll do it, but no talking. (얘기하는 건 안되!) (F)

‘No ~ing’ (~는 안되!) 구문은 관용적 표현으로 학습해 둘 필요가 있겠다.

3.2.5 Condensed Assertions

Condensed Assertions는 불필요한 말이 생략이 되면서 명사구나 형용사구만 사용되어 나타나는 생략의 경우를 말한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는 다음과 같다.

A : Name? (F)

B : Just Ross!

A : Okay, date of birth?

B : You know my birthday.

A : Only there was no one there? (P)

B : No wife. No lights. No dinner.

A : Couldn't this be construed as illegal? (P)

B : Invasion of privacy.

A : I'm a big fan. Great song. (M)

B : Yeah. One of my favorites.

3.2.6 Elliptic Exclamatives

Elliptic Exclamatives는 감탄문에서 대명사 주어와 be 동사 형태가 생략되면 서 나타나는 생략현상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What a sweet child! 는 What a sweet child he/she is!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생략된 주어와 동사는 문맥(context)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Corpus에 제시된 실례는 다음과 같다.

What a pleasant surprise! (F)

(What a pleasant surprise this is!로 분석 가능)

What a great dinner! (What a great dinner it is!로 분석 가능) (M)

What a tragedy! (What a tragedy it is!로 분석 가능) (M)

Really? Oh, What a beautiful morning! (P)

(What a beautiful morning it is!로 분석 가능)

IV. 구어체 영어 표출의 특징(Performance Phenomena) : dysfluency and error

구어체는 문어체와 달리 비계획적이고 반드시 정확한 구문을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 표출(performance)시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Corpus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발화의 오류 현상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4.1. Hesitations(silent and filled pauses)

구어체 구문 발화 시 다음에 말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발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현상으로 corpus 전반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미식 영어에서는 uh, um으로 영식영어에서는 er, em으로 표기하고 발음차이는 없

다.

Corpus에 나타나고 있는 머뭇거림(hesitations)현상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I'm, uh, I'm gonna go too. (F)

Hey, uh, is it okay to come in? (F)

Hey, where's, uh, where's mom? (P)

Listen, I, uh,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M)

So, uh, Greg, how's your job? (M)

Listen, I, um... heard about the engagement. (F)

So, um, I guess you'll get this when you get home. (P)

Have umm, have you thought anymore about you and Rachel? (F)

4.2. Repeats (false starts)

화자가 다음 발화를 시작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앞에 언급한 단어나 구를 재반복 하는 현상을 말한다. 반복(repeats)은 화자가 미리 계획한 발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발화인지 상대의 주의를 끌고자 일부러 여러번 반복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Corpus에 나타나고 있는 반복(repeats)현상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Wher-where have you been? (P)

I still... I feel horrible. (F)

So, I'm, I'm probably still ovulating. (F)

Alright, I can't, I can't wait that long. (M)

What do I want, what d-o I w-a-n-t...? (F)

Well, this is, this is, this is not over! (F)

And in fact, why don't you, why don't you go ahead to the restaurant? (P)

I mean... I just...I just feel like, you know, we're so close. (F)

Wait, wait, excuse me... (M)

Miss? Miss? Miss! (M)

Oh, boy! Oh, boy! Oh, boy! Oh, boy! Oh, boy! Oh, boy! (M)

4.3. Retrace-and-Repair Sequences : Reformulations

화자가 진행하던 발화를 중단하고 다른 발화로 재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4.2의 반복(repeats)에 속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Dad, I don't think you sh-, I think you should leave Chris home Saturday. (M)

4.4. Grammatically Incomplete Utterances

문법적인 발화를 시작했지만 비문법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에 언급한 retrace-and-repair sequences 경우 와 같이 좀 전에 했던 발화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 상대방이 끼어 드는 경우, 상대방에 의해 발화가 수정되는 경우, 그냥 발화를 포기 해버리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Corpus에 나타나고 있는 grammatically incomplete utterances(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발화 현상)의 실례이다.

It just gets me... (M)

Well, it's... (P)

I'm sorry I didn't catch... (F)

Hi? I just thought that... (P)

But I...I wouldn't... (F)

Do you think that maybe, sometime, I could... (P)

No! I mean... Well, he asked me if we were living together, I... (M)

지금까지 구어체 구문 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현상을 다루어 보았다. 이는 corpus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구어체 구문 표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습자들이 발화 시에 범할 수 있는 실수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구어체 즉,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가장 쉽고 빠른 의사소통의 도구는 ‘입’이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밖으로 표출(performance)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말’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구어체이다. 한편 문어체, 즉 ‘글’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내 생각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내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는 ‘말’보다 더욱 정확한 어법에 맞추어 써야지만 자신의 의견이 성공적으로 잘 전달되어 지게 된다.

우리말에도 엄연히 이러한 문어체과 구어체가 따로 존재하여 상황과 격식에 따라 차별화 된 구문을 사용하고 있듯이, 영어에도 상황과 격식에 따른 문어체와 구어체 구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차별화된 구문 교육을 받지 못했다. 기존의 문법서나 영어 시험 등은 모두 문어체 구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문어체과 구어체 구문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구어체 구문 습득에 대한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어체 구문 지도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대하여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authentic) 자료를 선택하여 구어체 구문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었던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구어체 구문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구어체 구문 분석 기준에 따라 나타나는 구문의 특징과 논술체 문어체와 구별되는 차이점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구어체 구문의 30가지 항목에 의거한 분석 내용 중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단문/중문/복문/비절 구조

분석 결과 단문(simple sentence)의 사용이 가장 많아 원어민들은 회화체에서 간편한 문장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고, 문어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비절 구조(non-clausal units)가 전체 corpus의 19.40%를 차지하여 문어체와

달리 구어체 구문이 문맥(context)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2)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은 평서문 형태의 끝의 억양만 올리면 되는 구문으로 전체 corpus의 34.81%의 사용 비율을 나타냈다. 높은 사용 비율이 시사해 주어 평서문 형태의 의문문은 친근한 회화체 즉, 구어체 구문 의문문 습득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3) 부가 의문문(Tag Questions)

부가의문문은 우리말에 없는 구문으로 이해는 쉬우나 표출(performance)이 어려워 반드시 살아있는 구문 제시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4) 명령문(Command Sentence Forms)

명령문은 문어체 구문과 높은 사용 비율차이를 보이는 구어체 구문으로 직접 명령문은 표출하기가 쉬운 편이나 ‘Let’을 사용해야 하는 간접 명령문은 관용적 표현으로 다양한 용례 제시를 통해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5) 조동사(Modal Verbs & Auxiliaries) : have got to / be supposed to

조동사는 대화의 분위기/양태를 좌우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문법서에는 have to에는 강한 추측, 단정의 의미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분석 결과 have to는 must와 똑같이 강한추측, 단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들은 이를 have got to로도 사용하여 gotta로 발음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하기로 되어있다’ 의미를 지닌 유사 조동사 be supposed to는 예정/의무/가능의 뜻으로 활발한 사용을 보여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6) 원형 부정사(Bare Infinitive) : have/let/make

사역동사 ‘have, let, make’를 활용한 원형 부정사는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 구문으로 막상 말하려면 생각이 잘 나지 않으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수동태(Passive Voice) & 분사구문(Participle Construction)

수동태와 분사구문은 사용 비율이 낮아 구어체 구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구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et+p.p.’ 형태와 관용적 표현의 수동태 구문, 접속사를 생략한 부대상황적 의미의 분사구문은 중요 구어체 구문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9) 가정법(Subjunctive Mood) :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

가정법 조동사 would/could를 활용한 가정법 사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약화시켜 말의 어조를 매우 공손하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0) 접속사(Conjunctions) : 유사접속사

접속사 기능을 하는 유사 접속사는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중요 구문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11) 관계대명사(Relative Pronouns) : what

선행사 the thing을 포함하고 있고 ‘...한 것’의 의미를 갖는 관계대명사 ‘what’이 this is what~, here’s what~, it’s what~의 구문이 반복 사용되고 있었다.

(12) 생략(Ellipsis)

전체 corpus에 광범위하게 나타난 생략 현상은 구어체 구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주어, 주어+ be 동사, Be 동사, 접속사 ‘and’ 생략은 EFL의 국내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중요 구문이다.

(13) 연결사(Cohesive Markers) : and, but, or

다양한 관계사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긴 문장을 만들어 내는 문어체와 달리 구어체는 단문 형태의 짧은 문장을 and, but, or등의 연결사를 사용하여 계속 이어가는 특징을 보였다.

(14) 다양한 삽입어(Inserts) 사용

삽입어(Inserts) 사용은 비격식체의 구어체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특히 다음 발화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discourse markers, 상대의 응답을 유도하는 response elicitors, 상대의 발화에 응답하는 response forms는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어 의사 소통을 매끄럽게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FL 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는 BICS에 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구어체 구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구어체 구문에 관련 연구 자료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영어 교사들과 영어교사 지망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구어체 구문에 대한 교재를 연구/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후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응용/활용 될 수 있도록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또한 구어체의 구문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구어체 구문 표출의 발음 현상도 연구·제시되어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발음 습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금령. (1990). *영어의 Ellipsis*.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현근. (2001).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인철. (1997). *실용영어어법*. 서울: (주)현대영어사.
- Brazil, David. (1995). *A Grammar of Speech*.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 (1994). *Principles a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New York: Prentice Hall Regents.
- Cummins, J. P. (1983). Language Proficien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John W. Oller, Jr. Ed. *Issues in Language Testing Research*. Rowley, Newbury House, 108-126.
- Biber Douglas, Johansson Stig, Leech Geoffrey, Conrad Susan, Finegan Edward . (1999). *Contemporary English Grammar*. Pearson Education Limited. Longman Inc.
- Greenbaum, Sydney & Quirk, Randolph.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Longman Inc.
- Hymes, D.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 Homes (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Joos, Martin. (1961). *The Five Clocks*.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Inc.
- Krashen, S. D.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D. & Terrell, Tracy. D. (1983). *The Natural Approach :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1-19.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Inc.

참 고 자 료

- 송성문. *성문종합영어*. 서울:성문출판사
- 최완규. (2003). *Fucking Spoken English*. 서울: 넥서스
[http : //mall.neoqst.com](http://mall.neoqst.com)
- Sterling Johnson. (1996). *English as a second fucking language*.
New York : St.Martin Press.
- Video clip of ‘*Pleasantville(1999)*’
- Vedio clip of ‘*Meet the Parents(2000)*’
- CD Title of sitcom ‘*Friends(1994)*’ <episode 901~905>
- The script of ‘*Pleasantville(1999)*’
www.20woo.com
- The script of ‘*Meet the Parents(2000)*’
www.20woo.com
- The script of sitcom ‘*Friends(1994)*’ <episode 901~905>
www.friendscinema.com/scrips/index.php
www.geocities.com/friends-greatestsitcom/script.htm
www.geocities.com/vspramod/links/friends/friends.htm
- The kinds of movie genre
www.yahoo.com
- Reviews on the movies selected as Corpus
www.cineseoul.com
www.nkino.com
www.imdb.com
- Reviews on sitcom ‘*Friends(1994)*’
www.nbc.com

ABSTRACT

Corpus Analysis of the Spoken English

Kim, Kyoung Hwa
Major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the world has embraced another new 21st centur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s been more interwound in all aspects, the importance of the English competence has been considered in the foremost of any.

Despite its high necessities, Korean students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lack of English speaking abilities and have attributed it to the school education, so-called grammar-oriented lesson.

In some way, it seems reasonable, but its fundamental reason dates back respectively less exposure to authentic English. Therefore, it is of the significance that students be educated in terms of formalities of the language, which are frozen, formal, consultative, casual, intimate and enabled to use appropriate language forms in each situa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exclusively focused on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and designed to facilitate students'

accessibility to spoken English.

The material of the corpus was selected from what native speakers use in their real-life and I believe that it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tudy.

This study is divided into 5 parts.

The first part show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introduces the criteria of the analysis. And yet again its data selection and some limitations on the study also clarified.

In second part, the analyses of selected 4447 corpus are conducted according to 15 items respectively including Simple/Coordinate/Compound Sentence, SentenceType, Verb-based Basic Structures, Tense & Aspect, Modal Verbs & Auxiliaries, Verbals, Participle Clause, Mood, Voice, Relatives, Conjunctions, Structural Variations, Cohesive Marker, and Comparisons.

Non-clausal units are dealt with in the second part. They are divided into 2 parts based on their functions they play in the sentences. Those are inserts and syntactic non-clausal units. Again, the analyses of inserts are conducted according to 9 items, and non-clausal units are 6 items. Each is Vocatives, Interjection, Greetings & Farewells, Discourse Markers, Attention Signals, Response Elicitors, Response Forms, Polite Speech-act Formulae, Expletives and Elliptic Replies, Condensed Questions, Echo Questions, Condensed Directives, Condensed Assertions, Elliptic Exclamatives.

Next, performance phenomena of the spoken English is handled. These are divided into 4 characteristics. : Hesitations(silent and filled pauses), Repeats (false starts), Retrace-and-Repair Sequences : Reformulations, Grammatically Incomplete Utterances.